

# 現代福音主義聖經觀 論爭(II)\*

—성경의 무오와 권위를 중심하여—

이 환 봉

(본 연구소 연구원 · 고신대 전임 강사)

## 차 례

- |                           |                     |
|---------------------------|---------------------|
| 1. 서론                     | 5. 성경의 무오와 비평<br>주의 |
| 2. 성경의 무오에 대한<br>성경적 기초   | 6. 성경의 무오와 권위       |
| 3. 성경의 무오와 교회<br>의 역사적 신앙 | 7. 결론<br><br>참고문헌   |
| 4. 성경의 무오에 대한<br>복음주의 논쟁  |                     |

## 1. 서론

성경의 무오(Inerrancy)와 권위는 현대 신학적 논쟁의 분수령과도

\*본 논문의 제4장과 제5장은 필요에 의해 「교회문제연구」 제2집 (1981.2)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같으며, 오늘날 모든 신학적 평가의 시금석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sup>1)</sup>

초대 교회의 중요한 논쟁점은 하나님의 인격, 특히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독론적 문제였으며, 이 논쟁의 결과로 역사적 전통주의의 삼위 일체 교리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중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취급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약점이 있었으나 Anselm이 작성한 Latin 교리는 히브리서에 의해 제시된 성경적 구원 역사를 충실히 잘 나타내었다. 또한 종교 개혁 시대에는 구원론에 있어 의신득의의 교리(Sola Gratia, Sola Fide)만이 성경적 가르침임이 확증되었다.<sup>2)</sup>

이와같이 지난날 교회는 그 시대마다 특유한 교리적 논쟁으로 인한 기독론적 위기, 구원론적 위기, 그리고 종교 개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때마다 그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훌륭한 성경적 정통

1)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p. 13; Hywel R. Jones, "The Inerrancy of Scripture," *The Bible under Attack*(Welwyn: Evangelical Press, 1978), p. 9; 간 하배, 「현대신학 해설」(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4), p.11; 성경적 완전 무오(Inerrancy)를 부정하는 자들은 'infallibility'와 'inerrancy'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한다.

Stephen T. Davis는 그의 책 *The Debate about the Bible*(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에서 'Infallibility'는 신앙과 실제의 문제에 관한 성경의 신뢰성을 말하며, 'Inerrancy'는 성경의 모든 현상(Phenomena)의 무오를 말한다고 하여 성경은 'infallible' 하지만 'inerrant'하지는 않다고 함으로 성경의 완전 무오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두 용어를 다른 여러 사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의어로 보며 동일하게 '무오'로 번역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뜻은 성경이 그 전체와 부분에서(in the whole and in the part)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John Montgomery, "Inspiration and Inerrancy: A New Departure,"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8, No. 2, Spring, 1965); Lindsell, *op. cit.*, p.200.

교리들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신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신학 자체의 인식론적 기초에 있다. 즉 신학은 이성, 교회, 성경 중에서 어떠한 원칙으로부터 그 교리적 모범들(Models)을 작성하며, 또한 그 전제들을 검정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sup>3)</sup>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큰 분수령은 신학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문제로 집약되어지며, 그 중에서도 성경의 무오 교리에 관한 논쟁은 현대 신학 논쟁의 살아 있는 문제점이다.

역사적인 정통 성경관은 J.G.Machen이 설명한 바대로 성경이 '부분적 진리와 부분적 거짓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진리이며 복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강하고도 생생한 표상'임을 믿어 왔다.<sup>4)</sup> 특히 성경 무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견해요, 사도들과 교부들의 주장이었으며, 종교 개혁자와 개혁주의 신조서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적 신앙으로 견지되어 왔다.<sup>5)</sup>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합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인 고등 비평의 도입에 의하여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었던 성경 무오 교리를 명백하게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었다.<sup>6)</sup>

이리하여 처음 무오 논쟁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납하는 자

3) Clark H. Pinnock,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7), p. 1; Lindsell, *op. cit.*, p. 200.

4) J. Gresham Machen, *The Attack upon Princeton Seminary: A Plea for Fair Play*(Philadelphia: Johnson and Prince, 1972), p. 37.

5) cf. Carl F.H. Henry, "The House Divided: An Interview with Carl Henry," *Eternity*(October, 1976), p. 38.

6) Harold J. Ockenga, "From Fundamentalism, Through New Evan-

들과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뚜렷이 상반된 두 진영, 즉 자유주의(Liberalism) 및 신정통주의(Neo-Orthodoxy)와 복음주의(Evangelicalism) 사이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무오 논쟁은 그 표현과 신앙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며, 특히 이 논쟁은 이미 그 문제가 확정되어진 자유주의적 전통 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의하여 현대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7)</sup>

현대 복음주의 무오 논쟁에서 크게 상반된 두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 한 편은 역사적, 지리학적, 과학적 가르침을 포함한 성경의 전부가 영감되었으며 정확 무오한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 편은 구원 역사와 교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만이 무오한 진리라고 하여 제한된 무오(Limited Inerrancy)를 주장하고 있다.<sup>8)</sup> 이에 대하여 최근에 Harold Lindsell과 성경 무오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결성된

gelicalism," *Evangelical Roots*, ed. Kenneth S. Kantzer (New York : Thomas Nelson INC., Publisher, 1978), p. 36.

7) Lindsell, *op. cit.*, p. 202.

8) Harold J. Ockenga, "Foreword," *The Battle for the Bible*, p. 9; cf. Richard Coleman, "Reconsidering Limited Inerranc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Vol. 17, No. 4, Fall, 1974), pp. 214ff.

9) ICBI는 1977년 10월 미국 Chicago에서 284명의 보수 신학자, 교수, 목사, 평신도들이 모여 성경 무오 교리를 성경 권위의 본질적 요소와 교회 전통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옹호하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어진 단체이다. 그 본부의 주소는 「ICBI, P. O. Box 13261, Oakland, California, 94611」이다. 그 회원들 중에는 유수한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명의로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Authority*(James Boice, ed. (Zondervan)), *Does Inerrancy Matter?* (James Boice(ICBI Pub.)) *Can We Trust the Bible?* (Earl Radmacher, ed. (Tyndale)), *Inerrancy* (Norman L. Geisler, ed. (Zondervan))등의 성경 무오를 변호하기 위한 책들을 출간하였다. 「The Chicago Statement」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10) Lindsell, *op. cit.*, pp.203~204, 210~211.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ICBI)<sup>9)</sup> 속한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완전 무오에 대한 포기는 다른 복음의 근본 요소들도 점차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10)</sup>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완전 무오를 말하지 않고도 여전히 성경의 영감과 신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며, 성경의 무오에 대한 부정이 '복음주의적 교리를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한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을 거부하고 나선다.<sup>11)</sup> 이러한 복음주의 내의 급격한 신학적 변화와 대립에 의한 교회의 혼란과 분열로 사실상 오늘날 복음주의는 기독교의 주도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sup>12)</sup>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이러한 현대 무오 논쟁의 심각성과 신복음주의자들의 복합적이고 탈선적인 성경관을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평가하여 그 확산의 위험을 경고하며, 성경의 무오와 권위에 대한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입장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성경적 무오 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성경 자체의 증거와 선언들을 통해 분명히 하였으며, 둘째로 성경의 무오를 믿고 가르쳐 온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신조서들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의 축자적 무오 교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 일관되어 온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었음을 밝혔다.

11) Carl F.H.Henry, "Conflict over Biblical Inerrancy," *Christianity Today*, Vol.xx, No.16, May, 1976; Harold Lindsell, *The Bible in the Balance*(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p. 46; B.Ramm, "Is 'Scripture Alone' the Essence of Christianity?" *Biblical Authority*(ed. Jack Rogers, Waco : Word, 1977), pp. 109~123.

12) Kenneth S. Kantzer, "Evangelicals and the Inerrancy Question," *Evangelical Roots*, pp. 83ff; 저명한 미국 교회 사학자인 Sydney Ahlstrom은 심지어

세째로 그러한 역사적 정통 성경관이 현대 복음주의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변질되어 왔는가를 신복음주의 성경관의 발전 과정을 통해 밝히고, 특히 풀러신학교(Fuller Seminary)의 성경관에 대한 좌경 현상과 그 문제점을 규명하려 한다.

네째로 본 논문의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서 현대 무오 논쟁의 핵심과 복음주의 내 신학교의 좌경 현상의 근본 문제점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고조하는 주관주의의 한 산물인 역사적 비평 방법(Historical-Critical Method)의 수용에 있음을 밝히고, 이 비평 방법의 수용과 적용에 대한 대표적인 복음주의자들의 태도를 논평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인간성(Humanity)이 성경에 역사적 비평 방법을 적용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하고, 동시에 실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성경의 현상들(Phenomena)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며, 그 현상들(병행 구절, 인용, 시간 및 문화의 제약)에 대한 비평주의의 입장은 비판하고자 한다.

다섯째로 무오 논쟁의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권위의 본질과 소재를 밝히기 위해 성경의 무오와 권위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를 논하였다. 그리고 결론적 요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적 권위와 필연적인 무오성을 가지며, 성경의 완전 무오를 고수하려는 것은 오직 성경 자체의 증거와 요구에 겸손히 경청하고 승복하려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임을 강조하였다.

---

미국 교회사에서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의해 좌우되던 시대는 이미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였다.(cf. Ahlstrom, "From Puritanism to Evangelicalism: A Critical Perspective," David F. Wells and John D. Woodbridge, eds., *The Evangelical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pp. 289~309;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2. 무오(Inerrancy)에 대한 성경적 기초

개혁주의 성경 교리의 제일 요점은 그것을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부터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동시에 성경 무오 교리의 원천도 성경 자체의 본질과 선언들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sup>2)</sup>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성경 무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오직 성경 자체의 증거에다 기초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용함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하나의 순환 논법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고소자나 반대적인 중인들의 이의서(異議書)에 관하여서는 고의적으로 논쟁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모든 참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신 주님 자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아니고 편견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의 증거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관한 진리가 정상적 인간의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을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예수의 증언을 순환 논법이라고 논박하였을 때, 예수는 자기의 증언을

---

1) Cornelius Van Til,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Na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p. 25, cf. Jonh Calvin, *Inst.*, I.vi, 2; R.C.Sproul, "Sola Scriptura: Crucial to Evangelicalism,"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103.

2) cf. John H.Gerstner, *A Bible Inerrancy Primer*(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pp. 11~13.

3) Rene Pache,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Scripture*, trans. Helen I. Needham (Chicago: Moody Press, 1977), p. 121.

불법적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주장하셨다.<sup>4)</sup>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the perfect Man)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서 이와같이 그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자체에 대해 증거함도 타당하다.<sup>5)</sup>

우리가 심판, 구원, 미래 등에 관한 모든 교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관한 확실한 가르침을 그 계시를 통하여서만 추론할 수 있다.<sup>6)</sup> 어떤 주제에 관한 우리의 첫 질문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sup>7)</sup>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 성경의 무오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성경이 무오를 요구하는 영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지에 있어 오류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지 않느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은 성경이 오류 없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무오에 대한 주장 없이도 성경의 영감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영감과 무오에 대한 편견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비난

4) Alan M. Stibbs, “The Witness of Scripture to its Inspiratio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arl F.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pp. 108~109; cf. 박형룡, 「교의 신학」(서론), 제1권(서울: 백합출판사, 1964), pp. 331~333; 요 5:31, 8:13, 14.

5) Cornelius Van Til, *op. cit.*, p. 26.

6) John M. Frame, “Scripture Speaks for Itself,” *God’s Inerrant Wor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ustworthiness of Scripture*, ed. John W. Montgomery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Fellowship, INC, 1974), p. 178.

7) 롬 4:3, 갈 4:30.

한다.<sup>8)</sup>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도 많은 구절들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본질인 영감과 그 무오성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 자체의 영감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개관하고자 한다.

### [출 4:10-16]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 선택된 개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들은 바를 그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to)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에 의하여(by) 말씀하셨다. 이러한 위대한 첫 사자(使者)가 곧 율법의 묵시자인 모세였다.<sup>9)</sup>

모세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는 무가치하며 그와 같은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1, 12)

여기서 하나님의 ‘내가 네 마음과 함께 있어 생각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라’고 말하지 않으신 점을 유의해 볼 때, 선지자의 전달은 단순한

8) cf. Dewey M. Beegle, *The Inspiration of Scripture*(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p. 64.

9) Rene Pache, *op. cit.*, p. 21; 구약 계시에 있어서 모세의 중요한 위치를 가리켜 H. Bavinck는 모세를 ‘구약의 중보자’(The mediator of OT)라 불렀고 (cf. H.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trans. H. Zyl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6, p. 71), G.Vos는 그를 ‘구약의 구세주’(The Redeemer of OT)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cf. G.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p.104)

사상과 개념의 전달만이 아니라, 동시에 말(words)의 전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의 개념은 곧 축자적 영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sup>10)</sup>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Aaron)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thy spokesman unto the people-KJV)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출 4:15, 16)고 하셨다.

여기 16절의 ‘대변자’(spokesman)는 히브리어로 Nabhi인데, 그 뜻은 ‘선지자’(prophet) 또는 ‘예언자’(forthteller)를 의미한다.<sup>11)</sup> 선지자 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전달할 말을 대변하는 사람 인 대변자(spokesman)를 가리킨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완전하고 무오하였으나, 선지자가 그것을 인간의 말로써 백성들에게 다시 권하였을 때는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입에 말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자신들의 전달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모든 오류로부터 보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2)</sup>

10) cf. Thomas A. Thomas,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Nutley,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pp. 12~13. 축자 영감설에 반대되는 영감의 한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마음 속에 두신 그 사상과 개념만을 영감하셨고, 성경 저자들은 이 개념을 그들 자신의 말과 방법대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11) Rene Pache, *op. cit.*, p. 21; cf. 박 청룡, 「교의 신학」(서론) 제1권(보수 신학 서적 간행회, 1969), p. 305.

12) cf. Hywel R. Jones, "Exodus"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eds. D.Guthrie, J.A.Motyer, A.M.Stibbs, D.J.Wiseman (London : Inter-Varsity Press, 1973), p. 124.

이것은 물론 선지자들이 단순한 기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실 때 그들의 개성을 결코 말살하지 아니 하셨다. 분명히 많은 성경 저자들 사이에는 문체와 어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그들의 말은 신적으로 믿을 만하며 권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 곧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그 말은 오류로부터 신적으로 보호를 받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 [출 31:18 ; 32:16 ; 34:1]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四十日 四十夜)를 시내산에서 지낸 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중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출 31:18)고 하셨다. 여기서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시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기록 방법이 ‘필기’(dictation)에 의한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다.<sup>13)</sup>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만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뿐이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보수주의자들이 종종 비난을 받는 성경 영감에 대한 ‘필기 이론’(dictation theory)보다 훨씬 더 고등한 성경 영감설을 암시해 주고 있다.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말을 그 돌판 위에 새기셨다. 그 정확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모세 스스로의 창작을 위한 그 어떤 여지도 남겨

13) cf. 역대상 28:19에서 다윗도 성전의 식양(式樣)에 대한 계시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직접 기록된 것으로 말하였다.

두지 않았다. 성경은 다시 분명히 밝혀 말하기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출 32:16)라고 하셨다.<sup>14)</sup>

이러한 십계명 속에 어찌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 계시 속에 오류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바로 그 문자의 형태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한 것이며, 그 속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다만 하나님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 뿐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으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들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출 34:1)

다시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도 모세의 기억과 상상에 의존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영감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인간적 오류 없이 전달되도록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다.

### [삼하 23:1, 2]

시편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David)은 다음과같이 자기의 기록들과 예언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14) cf. 출 24:4, 7, 12, 34:27, 28.

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삼하 23:1, 2)

다윗의 시편들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영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16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함으로 이 사실을 다시 증거해 주었다.<sup>15)</sup>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 속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므로 결코 오류를 범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신앙이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상이 내 마음 속에 있도록’(삼하 23:2)고 아니한 것도 사상만의 영감이 아닌 성경의 완전 영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 할 수 있다.<sup>16)</sup>

### [시 19:7-11]

우리는 다시 여기서 성경의 무오에 대한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다윗은 다음과같이 노래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7, 8)

15) cf. 행 4:24, 25, 2:30, 31; Robert P. Lightner, *The Saviour and the Scriptur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6), p.45; Arthur W. Pink, *The Doctrine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p.98.

16) Rene Pache, *op. cit.*, p.73.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하면 그 속에 어찌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거짓이 진리와 혼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수 있겠는가?<sup>17)</sup>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어떤 오류의 혼합도, 불순물과 지질한 교리도, 그리고 그 어떤 허위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이다.<sup>18)</sup> 시편 기자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오류도 보이지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시 19:10)이었다.

[렘 1:7, 9; 15:19; 26:2; 36:2; 23:28,30,32]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오늘까지…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 하라”(렘 1:7, 9; 15:19; 26:2; 36:2)

선지자들은 자기들 예언의 근원을 알았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과,<sup>19)</sup>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계시를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sup>20)</sup> 그러나 그들이 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전

17) cf. 시 119.

18) David Dickson, “Psalms,” *The Geneva Series of Commentarie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p. 95.

19) 사 6; 렘 1:겔 1~3; 암 3:7~8; 7:15.

20) 사 5:9; 6:9; 22:14; 28:22, 렘 1:9; 3:6; 20:7~9; 겸 3:16, 26~27; 암

혀 예레미야의 자유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 않아 예레미야는 그에게 전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야만 했고, 또한 단 한 마디의 말씀도 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 속에 어떤 오류들이 있게 될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심으로 전달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사상이 아니라 말이었다는 점은 예레미야의 기록이 축자적 영감에 의하였음을 증거해 준다. 하나님은 이와같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말을 전하도록 하셨다. 또한 그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거짓 무리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렘 23:28,30,32)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아니한 메시지를 감히 말하려 하지 않았다.

[암 3:1,7,8; 미 3:8]

아모스와 미가는 특히 폐역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었다. 비록 그들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를 선언함에 있어서는 성실해야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암 3:1).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3:8; cf. H.Bavinck, *op. cit.*, p. 97.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암 3:7, 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혀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8)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명령하실 때 그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호와의 신에 힘입어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다. 만약 성경 속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비난을 받으셔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비록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약점에 예민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침착한 확신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란다'는 식의 불확실한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몰아붙였던 그 영감은 동시에 그들의 그 기록들을 정확 무오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들의 개성이 그들의 기록에 색채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그들의 기록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조와 그 발언을 능히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지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들의 메시지를 기록함에 있어 고도의 충실했고 담력, 그리고 최상의 확인을 나타내 보였다.

"먼저 그들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의 기록들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현저한 특징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확고 부동한 신념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하여 그

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사상들과 그 이름으로 말한 명령들과 권고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암시에 의하여 나타났으며 실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sup>21)</sup>

열려진 마음(open mind)으로 이러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읽는 자는 그 누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진리 자체이시며 거짓말하거나 오도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그 선지자 자신들이 직접 확신있게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Gaussen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덜 신적인 것으로서 분리시킬 수 있는 성구를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sup>22)</sup>

## (2) 성경 무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록을 구약과 비교하여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한 결정적인 확증을 제시하였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즉 그들은 그 말씀들을 그들 자신의 말이나 견해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신 말씀들을 충실히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예언들의 성취에 대한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였다.

21) William Sanday, *Inspiration: Eight Lectures on the Early History and Origin of the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London: Longmans, 1903), p. 394.

22) S. R. L. Gaussen, *Theopneustia: The Bible, Its Divine Origin and Inspiration*, trans. David D. Scott (Cincinnati, Boston and New York: Blanchard, 1859), p. 67.

선지자들은 창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신약도 이와같이 성경 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 대변자들에게는 있지 않다는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다.

[마 1:22; 2:5, 6]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마태는 이사야 7:14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 τοῦτο δὲ ὅλου γέγονεν ἵνα πληρωθῇ τὸ ρῆθε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λέγοντος.”(마 1:22)<sup>23)</sup>

여기서 마태가 사용한 용어법은 그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사야 7:14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여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언 성취의 책임이 이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이사야는 다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23) 「The Nestle Greek Text」의 “τὸ ρῆθε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를 KJV에서는 “~Which was spoken of the Lord by the prophet~”로 번역하였으나 성경 말씀의 주체는 선지자보다는 주님이신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대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Which was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전치사 ὑπὸ”는 수동태 동사로 직접적 행위자를 소개하며, 전치사 διὰ는 중재적 행위자를 소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발설자(發說者)는 여호와시며, 선지자는 그가 말씀하시는 수단인 매체, 또는 대언자일 뿐이다”(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문창수 역, 「마태복음」, 백합출판사, 1973, p. 49). RSV도 “What the Lord had spoken by the prophet”라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ὑπὸ와 διὰ에 관한 용법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cf.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trans. Walter Bauer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p. 179~850.

했을 뿐이었다.<sup>24)</sup>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 자기의 예언들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의 영감 교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sup>25)</sup>

마태복음 2:5, 6에서도 마태는 미가 선지자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에 대한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확고하고도 즉각적인 응답을 보도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였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전혀 의심 없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참되고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었었다는 좋은 증거를 보여준 셈이다.<sup>26)</sup>

[마 5 : 18]

예수 그리스도는 전 구약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을 다음과같이 증거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cf. 뉴 16:17)

이 구절에서 결정적인 단어는 ‘일점 일획’(one jot or one tittle : λῶτα ἢν ἥ μία κεράτα)이다. ‘일점’(jot)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적은 문자인 히브리어 *yodh* 와 가장 가까운 뜻의 헬라어 알파벳의 아홉 번째 문자 *Iota*를 의미한다. 이 표현은 성경의 가장 사소한 것에 관한

24) cf. William Hendriksen, “The Gospel of Matthew,” *New Testament Commentary*(Guildford and London: The Banner of Trust, 1973), p. 138.

25) cf. 사 1:10~18, 30:8~15, 55:6~11.

26) 초대 교회 당시의 많은 가경들도 구약의 정경성에 대해 좋은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거룩한 성경책’(I Maccabees 12:9)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기록자’(Ecclesiasticus 24:23; 28:27; Wisdom 11:1) ‘주님의 입으로부터’(Esdras 1:28) 등이며, Josephus도 *Antiquities of the Jews*: IV, 49에서 선지자의 말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다.

언급이다.<sup>27)</sup>

그리고 ‘획’(tittle)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어떤 히브리어의 작은 돌출부 및 선단(先端)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어에서 ‘O’를 ‘Q’로 바꾸는 작은 선과도 같은 것이다.<sup>28)</sup>

R.L.Harris는 이것을 다음과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마치 i의 점과 t의 가로획과도 같이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별하는 히브리 문자들의 가장 작은 부분들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별짓는 데 흔히 사용되는 히브리어 문자와 우(ウ)에 대한 언급이라고도 생각한다.”<sup>29)</sup>

그리므로 주님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작은 히브리어 문자와 심지어 히브리어 문자들을 서로 구분짓는 작은 한 획까지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심으로, 바로 그 단어와 문자 자체의 영감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처럼 만약 원래 기록된 원본 구약 성경의 매우 사소한 부분들과 하찮은 것까지도 모두 영감된 것들로서 성취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성경은 그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처럼 완전하며 정확 무오한 것임에 틀림없다.<sup>30)</sup> 그리하여 주님은 그 성경의 존속 기간을 하늘과 땅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기원이 초인간적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것이다.<sup>31)</sup>

27) Robert P. Lightner, *The Saviour and the Scripture*(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6), pp. 66~67.

28) cf. W. Hendriksen, "the Gospel of Matthew," *N. T. Commentary*, p. 291;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I. (『마태복음』, 문창수 역, 백합출판사, 1973), p. 182.

29) R. Laird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Pub. House, 1957), pp. 46~47. 「성경의 영감과 정경」, 박종칠 역, pp. 41ff.

30) Robert P. Lightner, *op. cit.*, pp. 67~74.

31) cf. Rene Pache, *op. cit.*, p. 217; Robert P. Lightner, *op. cit.*, p. 15.

그러나 근래의 많은 비평가들은 항상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주님의 강조를 전혀 뒤바꾸어 말하기를 주님은 그 문자 대신에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려 하셨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축자적 영감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교훈을 약화시키려 한다.<sup>32)</sup>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에 대한 예수의 고등한 견해와 특히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원칙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지 결코 축자적 영감에 대한 주님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3)</sup>

오래전 이러한 비평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Richard Rothe에 대한 Warfield의 대답은 이 ‘점’과 ‘획’에 대한 우리의 정통적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 그 자체를 말한다. 더우기 그러한 기록된 형태 속에서만 ‘점과 획들’이 율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전 구약 성경을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으며, 각 부분들과 그 단어들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정확성을 소유한 것으로 보셨다. 이러한 성경의 축자적 완전 영감에 대한 주님의 믿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sup>35)</sup>

32) cf. Dewey M. Beegle,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pp. 73~75.

33) cf. Daniel B. Stevick, *Beyond Fundamentalism*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pp. 87~88.

34)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p. 184.

35) S. R. L. Gaussen, *The plenary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 (Chicago:

[눅 24:25 - 27, 44, 45]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같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데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 - 27)

신앙의 대상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그들의 말해진 발언은 그들의 기록한 기록과 동일하다)이어야만 한다. 만약 거기에 진리와 함께 오류들이 섞여 있었다면, 왜 주님께서 이와같이 전 구약 성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하셨겠는가? 한결음 더 나아가 주님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들의 자신에 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셨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수정해야만 했던 오류는 단 하나도 없었다.

주님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속에 수정해야 할 오류가 있다는 암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 성경 무오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매우 강한 논증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오류들을 지적하여 반대하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특히 성경에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 그 성경에 다른 무엇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책망하셨기 때문이다.<sup>36)</sup>

The Bible Institute Colportage Association, n. d.), p. 102; J. W. Wenham, *Our Lord's View of the OT*(London : The Tyndale Press, 1953), p. 25.

36) Rene Pache, *op. cit.*, p. 123; R. P. Lightner, *op. cit.*, p. 75.

그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또 다시 이 문제들을 다루셨다.—“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4, 45)—구약을 율법,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들(혹은 성문서)로 삼중 구분하는 것은 전 구약과 성경을 묘사하는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그런 고로 주님은 여기서 구약의 모두가 동일하고 권위있는 것으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만일 깨닫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다면 그 잘못은 항상 인간의 이해력에 있지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주님 자신이 기록된 전 구약 성경이 무오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신약은 구약을 정경화한다. 즉 성육하신 말씀(the incarnate word)이 기록된 말씀(the written word)에다 그의 인(印)을 치신다. 그러므로 구약의 영감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확증되었다.”<sup>37)</sup>

[행 13:17 - 22]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였을 때, 그는 역사적 이야기에 익숙한 문체를 사용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7) Christopher Wordsworth, *On the Inspiration of Holy Scripture* (Philadelphia : Herman Hooker, 1854), p. 51.

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으며, 광야 방황 속에서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참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 내셨으며, 그리고 사사들과 선지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다윗, 다른 선지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묘사하였다.<sup>38)</sup>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흔히 역사적 오류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비록 성경에 있는 교리들은 진리일지라도, 성경 속에는 많은 역사적 그리고 사실적인 오류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교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건들을 신화나 전설이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로서 소개하고 있다.<sup>39)</sup> 바울은 성경의 교리적 그리고 역사적 진술이 모두 정확 무오하며 권위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 [롬 9:17]

바울은 출애굽기 9:16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에게 하신 직접적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 이로라 하셨으니”(롬 9:17)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

38) Cf. 출 6:1, 6, 신 1:31, 7:1, 9:5-24, 수 14:1ff, 샷 2:16, 삼상 8:5, 9:1, etc.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열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행 7:2-50)

39) 사실상 문학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신화들과 전설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고 안되어지지 않았었다’(Rene Pache, *op. cit.*, p. 225); cf. F. F. Bruce, “The Book of Act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Grand Rapids : Eerdmans, 1954), p. 272.

는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고로 이러한 전달 방법은 영감된 본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의 완전한 동일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sup>40)</sup> 바울의 마음 속에 성경은 진실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이 이르시되’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용어들을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41)</sup>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권위와 신뢰성을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놓여 있었다.

#### [고전 2:1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고전 2:10)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영적 이해의 능력을 가졌다고 바울은 가르쳤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순수한 계시는 바울이 선택한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

40) Rene Pache, *op. cit.*, p. 82; cf.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II(김 진홍 역, 「로마서」(하), 백합출판사, 1975), p. 116.

41)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175~176; Warfield는 여기서 Frederic Farrar (“Life of Paul” I, 49), Otto Pfleiderer (“Paulinism” I, 88), E. Stauffer 등이 동일한 견해임을 밝혔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18에서 신명기 25:4을 ‘성경에 일렀으되’(Scripture Saith)로 인용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곧 성경의 지시와 동일시하였고, 히브리서 1:6에서는 신명기 32:43의 모세의 말과 히브리서 1:7에서는 시편 104:4의 시편 기자의 말을 ‘하나님이 가라사대’(God Saith)로 인용 보도함으로서 인간 저자의 말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었다.  
Cf. Herman Ridderbos, *Studies in Scripture and Its Authority*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78), p. 20.

이처럼 영감하에 바울이 기록한 문자는 바울 편의 단순한 마음의 자연적 영민함과 통찰력의 결과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바울에 대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의 결과이다.<sup>42)</sup>

성령은 사상과 개념만을 계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λόγος : words)으로써 계시하심으로 성경의 축자적인 영감을 의도하셨다. 이것은 물론 바울이 하나의 단순한 기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령은 바울의 어휘와 문체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들을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바울의 마음 속에 상기시키셨다(고전 2:14-16). 그러므로 바울의 문자는 인간 사도의 기록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이었다. 비록 자연인의 지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대변자들에게 전달하신 그 지혜는 거짓될 수도 그릇 인도하는 것일 수도 없다.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한 진리이다.<sup>43)</sup>

#### [갈 1:8 - 12]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정확 무오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다음과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

42) (벧전 1:10-12) 베드로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거 하여…지시하시는”(11절) 또는 “성령을 힘입어…너희에게 고한 것”(12절)이라고 하였다.

(벧후 1:21) “성령의 감동하심을…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43) 고전 14:37; cf.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J. W. Fraser (Grand Rapids : Eerdmans, 1973), p. 64.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선언한 사람의 확신에 찬 주장이다.<sup>44)</sup> 그는 자기의 메시지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만이 그 메시지를 변경시키려 하거나 파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다.

바울은 다시 근엄하게 선언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1, 12)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선언해야만 할 복음과 메시지를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그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으며 바울의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결함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진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였고 또한 주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보다도 더 진지한 증거는 달리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 [갈 3:16]

바울은 종종 자기의 논거를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였으나 갈라디아서 3:16보다 더 현저한 예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전 논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고 하실 때, 그 ‘자손’이라는 말이 복수(*οπέρματα* : seeds)가 아니고 단수(*οπέρματι* : seed)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44) (마 23:13-39)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예수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의견을 반복한 것이다.

있다.<sup>45)</sup>

그런데 이 ‘자손’(seed)이라는 단어가 복수인 ‘후손들’(descendants)을 의미할 수도 있는 하나의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단어에 의하여 단 한 사람만이 지목되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무언가 잘못 추론한 것처럼 보인다.<sup>46)</sup>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양 쪽에 있어 단 한 사람의 확정된 자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sup>47)</sup> 그리고 사실상 여기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 한 사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21:12에 이삭(Isaac)이 그 자손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바울도 ‘자손’이라는 단어가 집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갈 3:29)라고 하여 그 단어를 집단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단수적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 것은 바울이 이미 구약 구절의 참된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논증을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단 하나의 단어에 그들의 전 논증을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 바울의 논증 외에도 많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축자 영감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ex) 마 22:32→출 3:6, 마 22:45→시 110:1, 요 8:58→출 3:14, 요 10:33-36→시 82:6, 히 1:5, 6→시 2:7, 삼하 7:14, 히 1:9→시 45:7, 히 2:6-8→시 8:4-6, 히 2:11-12→시 22:22, 히 3:7-11→시 95:8-11, 히 6:13-17→창 22:16, etc.(Rene Pache, *op. cit.*, p. 76).

46) cf. Calvi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Calvin’s Commentaries*, trans. T. H. L. Parker, eds. D. W. Torrance & T. F. Torrance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74), p. 57.

47) Herman N. Ridderbos,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53), p. 134.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and to the Ephesians*(강 병일 역,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백합 출판사, 1975), pp. 139~140.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6)

바울은 여기서 그 구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집단적 후손들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주님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자손’이라는 이 단어도 그 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에 있어서도 단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성경의 단어 형식조차도 신적으로 무오하며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것이었다.

### [딤후 3:16]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성경의 신적 기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이 선언에 있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유익하니”(Every [All] scripture is inspired of God and profitable)라고 해야 하느냐?<sup>48)</sup>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48) cf. KJV: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

RSV: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

TEV (Today English Version):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is useful ~”

NIV(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All Scripture is God breath and is useful ~”

성경은 ~유익하니"(Every [All] scripture inspired of God is profitable)라고 해야 하느냐?<sup>49)</sup> 후자의 번역을 따를 경우에는 어떤 성경들은 영감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유익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영감설을 주장하려는 자기들의 신학적 편견에 의해 고의적으로 원문의 문법적 구성을 깨뜨린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16과 같은 구분 형식을 가진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도 그 형용사들은 모두 서술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sup>50)</sup>

그러므로 여기 디모데후서 3:16만 독특하게 한정적 용법으로 번역 한다는 것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부인하려는 저들의 의도적인 저의를 밝히 보여준다. 한정적 번역은 수많은 학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비평주의자들 중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도 유감스럽게도 저주받을 큰 실수로서 거부되어 왔다.<sup>51)</sup>

바울은 분명히 이 선언에서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Newport White 같은 이는 마태복음 2:3의 '온 예루살렘' (the whole of Jerusalem)과 유사한 문법적 구성을 대한 유추를 따라 여기 이 '모든 성경'(every scripture)도 '성경의 전부'(the whole of scripture)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아마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 하나하나의 구절' (every sing-

RSV와 TEV에서도 난외 주(註)에서 "Every Scripture inspired by God is also profitable"이라는 두 번째 번역의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49) ERV(English Revised Version) : "Every Scripture inspired of God is also profitable." cf.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34; Rene Pache, *op. cit.*, p. 46.

50) cf. 룸 7:12, 고후 10:10, 딤전 1:15, 2:3, 히 4:13, 고전 11:30, 딤전 4:4, 9, 히 4:12.

51) Loraine Boettner, *Studies in Theology*(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1), p. 21.

le passage of scripture)일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영감된' (inspired)의 헬라어는 'theopneustos' ( $\thetaεοπνευστος$ )로서 그 여자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발산되어진' (breathed out from God) ('안으로 불어넣으신' (breathed in) '안으로 빨아들인' (in-breathed)은 아니다)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산출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하나님에 의하여 말하여진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sup>53)</sup>

B.B.Warfield도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그러나 그 헬라어 용어는 'inspirating'이나 'inspiration'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한다. 즉 그 용어는 'spirating' 또는 'spiration'에 관하여서만 말할 뿐이다. 그것이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하여 안으로 불어넣어진' 또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 속에 신적 요소가 '안으로 빨아들여진 것'의 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발산되어진, '하나님이 숨을 내쉰' (God breathed) 하나님의 창조적 호흡의 산물이라는 것이다."<sup>54)</sup>

그래서 Warfield는 결론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들을 산출함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암시가 없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신

52) Newport White,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 IV, p. 175 : S. Custer, *op. cit.*, p. 51에서 제인용.

53) Homer C. Hoeksema, *In the Beginning God...* (Grand Rapids : Reformed Free Pub. Association, 1974), p. 19; Loraine Boettner, *op. cit.*, p. 21 ; B. B. Warfield, *op. cit.*, pp. 245~296 ; William Hendriksen, *Timothy and Titus : A Geneva Series Commentary*(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p. 302 :  $\thetaεοπνευστος$ 는 "God-breathing" "breathing the Divine Spirit"를 의미하지 않고 수동태형인 "God-breathed"이어야 한다.

54) B. B. Warfield, *op. cit.*, p. 133.

적인 산물이다'고 하였다.<sup>55)</sup>

다시 말하자면 성경 저자들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신적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건 속으로 그 성경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직접 그 성경이 발생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56)</sup>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 그리고 그 절대적 신뢰성을 확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만일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바르게 함'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르게 험'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무오성은 본 성경 구절의 문장상의 의미에 의해서도 요구되어진다.<sup>57)</sup>

성경이 이처럼 성령의 압도적인 신적 능력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진 것(God breathed)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간 자신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인간 저자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고등한 수준의 행위로 끌어 올리셨다(요 14:26). 그리고 실제로 인간 저자의 개인적 특징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문체와 언어의 폭넓은 다양성을 발견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영감은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것이다.<sup>58)</sup>

모든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에 택한 성경 저자 자신들의 산물이기도 하다.<sup>59)</sup> 물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55) *Ibid.*

56) cf. Robert L. Reymond, *The Justification of Knowledg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6), p. 53 : Warfield 영감론에 대한 도식(圖式)을 참고하라.

57) cf. 디모데후서 4:2-4, 디도서 1:9, 14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58) William Hendricksen, *op. cit.*, p. 302; cf. Bavinck, *op. cit.*, p. 102.

것의 합류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어떤 신비(mystery)의 요소가 있다.<sup>60)</sup>

그러나 그것은 다만 예외적이고 규범적이 아니며 그리고 자주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신비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신인 양성의 교리도 그 속에 신비의 요소가 있으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sup>61)</sup>

하나님의 영감의 산물인 성경에 오류가 없었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인간 예수가 원죄가 없는 것처럼 조금도 이상할 것이다.<sup>62)</sup> 그리고 예수의 인성은 그의 신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결코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참된 인성을 소유하면서도 결코 죄에 빠지거나 오류에 떨어질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적 요소도 그 신적 요소를 떠나서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다만 신적 요소들의 무오한 지도 아래서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도 결코 인간적 오류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sup>63)</sup>

그리고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7)고 하였다. 바울의 마음 속에 성경은 이 목적을 위해 완전히 충분한 것이

59) B. B. Warfield, *op. cit.*, p. 162; B. Ram, *Special Revelation and the Word of God*, p. 179;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k*, third ed. Vol. I, pp. 405~464; J. Orr, *Revelation and Authority*(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9).

60) cf. Adolphe Monod, *Farewells*(London : Banner of Truth, 1962), pp. 154~161; Louis Gaussen, *La Véritable doctrine de M. Gaussen Sur L'Inspiration des Ecritures, Trois Lettres* (Geneva, Switzerland : Richter, N. D., p. 13).

61) cf. 요 1:1, 14, 요 20:28, 롬 9:5, 히 2:14, 17, etc.

62) Harold Lindsell, *op. cit.*, p. 34; 이 문제는 5장에서 다시 취급될 것이다.

63) B. B. Warfield, *op. cit.*, p. 162.

었다. 그러므로 그 성경 속에 인간을 위한 중요한 것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성경의 정경은 그것으로 마감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 [벧후 1:19-21]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변화 산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목격자의 증거를 제시하였다(벧후 1:16-18). 그리고, 그 목격자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벧후 1:19)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은 매우 놀라운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선지자들의 예언적 말씀 (The Prophetic Word)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인지도 또는 이야기되어진 것인지도 간에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록된 예언적 말씀이 이야기되어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영속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흥분과 부족한 기억력에 의해 그 음성에 대한 기억을 그릇되게 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Charles Hodge도 “사람은 한 번들은 강론(講論)을 몇 해 후나 심지어 한 달 후에라도 초자연적인 조력 없이 신뢰할 만하게 보도할 수 있는 지각(知覺)의 명료성, 기억의 보유성(保有性), 혹은 설명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일이 날마다

수천년간 반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sup>64)</sup>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하며 권위있게 영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올바른 성경 이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알 것은 경(經)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 21)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경의 모든 예언’(*πᾶ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ής*: every prophecy of scripture)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16에서 말한 ‘모든 성경’(every scripture)과 똑같은 상당구로서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들에 적용된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란 말의 뜻은 그 모든 성경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간적인 연구의 결과이거나 저자 자신의 사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그 성경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65)</sup> Gleason L. Archer도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초자연적인 영향을 받아(바람에 몰려가는 향해하는 배와같이, *φερόμενοι*)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 또는 편견에 의해 처리되거나曲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인간 저자들의 모든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64) Charles Hodge, *Outlines of Theology* (1895), p. 121; cf. J. I. Packer, “The Necessity of the Scripture,” *The Bible: The Living Word of Revelation*, ed.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6), pp. 35 ~36.

65)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36.

그들을 곡해 또는 오류 없이 자기의 정확 무오한 진리에로 이끌 수 있었다.”<sup>66)</sup>

이에 대해 Warfield도 “비록 인간의 수단을 통하여 말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음으로’ 말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하였다.<sup>67)</sup> 특히 본문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φερομένοι)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7:17의 바람에 의해 ‘그냥 헛겨가더니’(εφερούντο)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성경 저자들에 대한 성령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그 저자들은 다만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그 성경 저자들이 단순히 로보트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 선택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 [계 22:18, 19]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어떤 비평적 주석가들은 이러한 말을 다른 묵시서에서 베껴서 유대

66) Gleason L. Archer, “The Witness of the Bible to its own Inerrancy,”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J. M. Boice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8), p. 95.

67) B. B. Warfield, *op. cit.*, p. 95.

cf. Harold Lindsell, *op. cit.*, p. 35.

적 정경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즉 고대의 성문서들에서 흔히 발견하듯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허술한 점을 가치있는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처럼 만들어 실제의 가치성 이상으로 이를 고취시켜 신앙과 신뢰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sup>68)</sup> 비록 다른 종교 서적들이 유사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어느 책도 성경과 유사한 윤리적 영향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타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그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것도 ‘내가…증거하노라’(μαρτυρῶ εἰώ)고 하여 강조적 εἰώ로써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은 확실히 우리가 그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sup>69)</sup> 그리고 만약 이 책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침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하다고 하면 이것은 이 책이 정확 무오하고 신적으로 권위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무엇 때문에 한 책에 있는 오류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 책 속에 제거할 만한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 교리를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의 일관된 가르침은 성경이 신적인 신뢰성과 권위 그리고 정확 무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의 개성이 밀실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성경의 무오한 영감에 의해 충실히 전달되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 강요된 편견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일관된 교리이다.

68)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John's Revelation* (「제시록」, 차 영배 역, 백합출판사, 1978), p. 532.

69) *Ibid.*, p. 533.

### 3. 성경의 무오와 교회의 역사적 신앙

성경의 축자적 무오(verbal inerrancy)교리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적 신앙이 되어 왔다.

어떤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이 교리를 다만 소수의 ‘반계몽주의적 근본주의자들’(Obscurantist Fundamentalists)과<sup>1)</sup> ‘근대적인 성장, 곧 Princeton Seminary-Hodge-Warfield-Machen학파’의 산물로써 묘사 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sup>2)</sup>

그리고 Karl Barth도 역시 이 교리를 종교 개혁 이후 시대의 한 고안물인 것처럼 말했다.<sup>3)</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도 시대 이후부터의 교회의 전 기간들을 통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 전통적 신앙을 소중히 간직해 왔다. 이 교리를 원리적으로 부정하는 Emil Brunner까지도 이 교리가 고대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축자 영감의 교리는 이미 기독교 이전 유대주의에 알려졌던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사도들에 의하여서도 주장되었다”고 하였다.<sup>4)</sup> 이처럼 이 교리는 유대주의의 유산물인 동시에 사도들에 의

1) Stewart Custer, *Does Inspiration Demand Inerrancy?* (Nutley, New Jersey : The Craig Press, 1968), p. 63.

2) R. Laird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7) 「성경의 영감과 정경」, 박 종칠 역(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8), p. 65; 이 주장은 1924년 ‘오변선언’을 옹호했던 비장로교 인사들의 주장으로 성경의 무오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근본주의 진영의 압력하에서 1923년 총회가 새로이 채용한 것이라 하였다.

3) Karl Barth, *Doctrine of the Word of God* (1936), pp. 126f.

4) Emil Brunner, *Christian Doctrine of God* (1950), p. 107.

Cf. Alan Richardson, *Preface to Bible Study* (1944), p. 25.

하여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초대 교회가 세력을 떠는 동안 Origen이나 Augustine과 같은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견지되어 왔다. 그리고 그후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많은 논쟁에 직면하였으나 성경 무오 교리에 대한 논란만은 야기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 개혁 이후 3세기 동안의 교회 성장기를 지나 19세기의 과학적인 고등 비평이 일어날 때까지 이 교리는 여전히 모든 교회의 확고한 역사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그 시대 동안 교회가 의심없이 전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있게 믿고 가르쳐 왔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된다.<sup>6)</sup>

본장(章)에서 우리는 교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 아처럼 꾸준히 견지되어 온 교회의 전통적 확신을 초대 교회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역사적 신조서들의 문헌적 증거들을 통하여 재확인하고자 한다.

#### (1) 교회 교부들의 증거(Clement, origen, Augustine)

2세기의 사도적 교부들(Apostolic Fathers)과 변증가들(Apolologists)은 성경 무오의 교리를 확실한 성경 자체의 교리로서 믿고 또한 가르쳤다. 교부들의 그러한 자세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W. Colkine,<sup>7)</sup>

5) R. L. Harris, *op. cit.*, p. 69; 초대 교회는 기독론(Christology)과 인간론(Anthropology), 종교 개혁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와 만인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가 각각 그 중심 주제였다.

6)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p. 42~43, cf. G. W. Bromiley, “The Church Doctrine of Inspiratio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arl F.H. Henry(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8), pp. 203~217. Clark H. Pinnock,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pp. 1~2.

7) Mcclintock and Strong, *Cyclopa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Literature*(New York : Harper, 1892), I, pp. 315ff.

G.D.Barry,<sup>8)</sup> W. Sandy<sup>9)</sup> 그리고 S.R.L.Gaussin,<sup>10)</sup>과 같은 학자들이 충분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잘 밝혀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몇몇 대표적인 초대 교부들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살피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잘못된 추론들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로마의 Clement는 A.D. 90~100년경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서신에서 여러 번이나 구약에 나타난 인간 저자의 말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성령에게 적용시켰으며, 사도들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sup>11)</sup> 그리고 그는 “너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하였나니 그 성경은 성령의 참된 말씀이라 그 안에는 불의하거나 궤사한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너는 알고 있다”<sup>12)</sup>고 하였으며, 그리고 그 성경의 관찰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말로써 인용하였다.<sup>13)</sup>

교부 Polycarp의 제자였으며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Irenaeus(A.D. 202년 사망)도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확신하였다. 그는 “성경이 참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히 믿어져야만 한다. 이는 그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이야기되어진 것이

8) George Dugan Barry,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Holy Scripture; A study of the Literature of the First Five Centuries* (New York : Macmillan, 1919)

9) William Sandy, *Inspiration: Eight Lectures on the Early History and Origin of the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London : Longmans, 1903)

10) S. R. L. Gaussin, *Theopneustia; The Bible, Its Divine Origin and Inspiration*, trans by David D. Scott (Cincinnati ; Boston and New York : Blanchard, 1859)

11) R. L. Harris, *op. cit.*, p. 71.

12) Clement I, XIV, 2, 3; cf. G. D. Barry, *op. cit.*, p. 37; Harold Lindsell, *op. cit.*, p. 47; S. Custer, *op. cit.*, p. 63.

13) Clement I, VIII 16, 45; cf. John H. Gerstner “The Church's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기 때문이다”고 하였다.<sup>14)</sup>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항상 정확하다고 선언하였으며 Marcion과 Valentinus가 누가복음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sup>15)</sup> 또한 그는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의하여 완전한 지식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서<sup>16)</sup>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Origen(A.D. 186~255)은 영감이 성경의 일점 일획과 문자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며(Homily on Numbers 27:1), 성경은 영감(spirit-inspired)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 무오의 교리를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밝혔다.(Homily on Matthew 15: 14)<sup>18)</sup>

Jack B. Rogers도 *Biblical Authority*에서 Origen에게 있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적이며, 그리고 모든 점에서 ‘초자연적으로 완

James Montgomery Boic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27.

14) Irenaeus, “Against Heresies, II, 28, 2,” *The Ante-Nicene Fathers Vol. I* (New York : Scribners, 1899), p. 399; cf. Clark H. Pinnock,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p. 2.

J. B. Payne, “The Biblical Interpretation of Irenaeus”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 F. Walvoord (Grand Rapids : Eerdmans, 1957), pp. 11~66.

15) R. L. Harris, *op. cit.*, p. 73.

16) Irenaeus, *op. cit.*, III, II, I, A. N. F. Vol. I, p. 414; cf. Harold Lindsell, *op. cit.*, p. 49. “부활 후의 사도들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을 때, 높은 테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모든 것(성령의 은사)으로 채워지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17) *Ibid.*, IV, 2, 3; cf. J. B. Payne, *op. cit.*, p. 16; S. Custer, *op. cit.*, p. 63. “그리스도는 모세의 기록들이 바로 자기의 말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지적하였다. 그런데 만약 모세에 대하여 그려하셨다면 다른 선지자들의 말들도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말씀이다.”

18) John H. Gerstner, “The Church's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The*

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sup>19)</sup>

그러나 Rogers는 계속하기를 Origen은 "동시에 거룩한 기록들의 인간적 특징에 대하여 매우 의식적이었다. 그는 신약이 가장 좋은 희랍어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시는 그 말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그 사항들(things)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sup>20)</sup> 여기서 Rogers는 기록의 인간적 특징을 강조하고 계시를 기록된 말(word)과 구분함으로서 Origen이 마치 성경 속에 인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한 것처럼 해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계시는 말과 심지어 문자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Origen이 주장하였음을 주의해 보았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메시지를 무오하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말들을 사용하셨다. 즉 하나님은 만약 그것이 자기의 청중이 이해하는 희랍어라면 심지어 가장 나쁜 희랍어라도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Origen은 한 순간도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하여 축자적으로 이해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낫추어 '아기 말'(baby talk)을 사용하기까지 하셨다고 생각한 것이다.<sup>21)</sup>

E.J. Young은 이러한 "Origen이 만약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면 그는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James M. Boic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27. cf;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51 ; G. Barry, *op. cit.*, pp. 79~80 ; Rene Pache, *op. cit.*, p. 234.

19) *Biblical Authority*, ed. Jack B. Rogers (Texas : Word Books of Waco, 1977).

20) Jack B. Rogers, "The Church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Biblical Authority*, p. 19.

21) John H. Gerstner, *op. cit.*, p. 28.

축자적 영감설에 대한 가장 철두 철미한 옹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고 하였다.<sup>22)</sup>

어거스틴(Augustine: A.D. 354~430)은 바울 이후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이며 특히 성경에 대한 어거스틴의 자세는 그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입장들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초대 교회 교부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칼빈의 생애와 칼빈을 통한 종교 개혁 당시의 개혁주의 교회들에게 어거스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sup>23)</sup> 이러한 어거스틴의 성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학 역사상에 있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Augustine은 Jerome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단어와 단 한마디의 말도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경적이라 불리어질 수 있는 오직 이 성경책들에 대하여만 이러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것을 배웠으며 그 저자들 중 어느 누구도 기록에 있어 그 어떤 점에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믿는다"(Epistles, 82. I. 3)고 고백하였다.<sup>24)</sup>

Barry는 왜 그리스도 자신은 어떤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기독교도들은 최고 수반의 지시를 통하여 받은 지식을 공개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말과 행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치 그 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말인 것처럼 그들에게 기록하도록 명령하였다."<sup>25)</sup>

22) E. J. Young, *The Word is Truth* (Grand Rapids : Eerdmans, 1957). p. 98.

23)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53.

24) Stewart Custer, *op. cit.*, pp. 63~64 ; Clark H. Pinnock,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p. 2 ; cf. R.L. Harris, *op. cit.*, p. 75.

25) G. D. Barry, *op. cit.*, pp. 140ff ; Harold, *op. cit.*, p. 55.

또한 R.Seeberg도 Augustine은 “성경 저자의 손들은 그 머리에 의해 지시되어진 것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Augustine은 성경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불일치도 존재하도록 허용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Augustine에게 있어 최고의 규범적이며 유일하고 정확 무오한 권위는 성경이다”고 하였다.<sup>26)</sup> 그런데 이처럼 확고한 성경 무오 교리에 대한 Augustine의 입장을 최근 Rogers는 다음과 같은 말로 써 오도하였다.

“Augustine에게 있어 상이한 기사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문제 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그 성경 저자 들의 사상에 놓여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말들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Augustine은 주석하기를 ‘어떤 사람의 말에 있어 우리가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다만 표현되어지도록 의도되어진 그 저자의 사상이다.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해 그 말들은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27)</sup>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상이며, 상이한 기사들 속에 나타난 그 말들의 모순은 사상으로써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이한 기사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상 Augustine이 말의 실재적 오류를 인정하였다고 한 Rogers의 추론은 크게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Augustine은 “Variac Sed non Contrariae : diversae sed non adversae”(Variations but not

26) Reinhold Seeberg, *Text-Book of the History of Doctrines*, trans. Charles E.Ha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6), Vol. I, p. 358.

27) J. Rogers, “Church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Biblical Authority*, p. 21.

Contradictions : diversities but not contrarieties)이라는 말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바대로 그 상이한 기사들을 서로 모순된 기사라는 의미로 써 이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러므로 Rogers가 위에서 인용한 Augustine의 그 언급을 ‘말이 아니라 사상이 문제’라고 하는 주장의 증거로써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기서 Augustine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만 그 말들이 사상의 표현에 있어 ‘도움이 된다’ (subservient) 는 것이었다.

Rogers에 의해 인용된 Augustine의 말은 오히려 사상을 말들의 목적이요, 말들은 사상에 대하여 도구적인 것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말 없이 사상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Augustine에게 있어 말 없이 계시된 사상은 불가능하며, 그리고 계시된 사상 없는 말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즉 하나는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Augustine이 함께 결속시킨 것(무오한 말들과 무오한 사상들)을 Rogers처럼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sup>29)</sup>

그러므로 *Biblical Authority*에서 Rogers가 침묵하고 지나가려고 한 Augustine의 무오에 대한 진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붕괴될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역사상 교회의 그 위대한 교사였던 Augustine이 이처럼 성경의 무오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로서 서 있다.

Gaussin은 Mopsuestia의 Theodore를 예외로 하고서(533년에 콘스탄티노폴에서 열렸던 제5차 세계 종교 회의에 의해 정죄를 받은) 기독교 초기 전 8세기를 통하여 성경의 완전 영감을 인정하지 못한 권위자는 단 한 사람도 언급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sup>30)</sup>

28) John H. Gerstner, *op. cit.*, p. 31.

29) *Ibid.*, p. 32.

30) Rene Pache, *op. cit.*, p. 235; cf. S. R. L. Gaussin, *The Inspiration of the*

일반적으로 말해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비록 그들이 기계적 영감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영감을 모든 성경의 세부 구절들에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듯한 집요함을 가지고 성경의 정확 무오를 끝까지 주장하였던 것이다.<sup>31)</sup>

## (2) 종교 개혁자들의 증거 (Luther, Calvin)

종교 개혁 당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어질 수 있느냐 또는 성경만이 기독신자의 유일한 표준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쟁적 주제였다. 그러나 성경 무오 교리는 그 당시 신학적 논쟁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sup>32)</sup>

그런데도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저술들 속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하여 초대 교부들과 동일한 신앙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Martin Luther는 축자 영감을 지지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III.21)고 하였다.<sup>33)</sup> M.Reu는 위대한 개혁자들의 저서에서 Luther가 전적으로 축자 영감설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팔목할 만큼 수집하였으며,<sup>34)</sup> A.S.Wood는 “Luther의 영감

Holy Scriptures, trans. David D.Scott (Chicago : Moody Press, n.d.)

31) G. W. Bromiley, "The Church Doctrine of Inspiration," *Revelation and the Bible*, pp. 207~208.

32)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p. 42, 56, 1517년 Luther가 내세운 95개 조항 속에서도 성경적 무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종교 개혁 운동의 중심 주제는 오직 믿음에 의한 정의와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교리였다. (*Christian Heritage*, June, 1975, p.9.)

33) *American Edition of Luther's Works*, III. 21. (Philadelphia and st. Louis ; Fortress and Concordis, 1955); cf. S. Custer, *op. cit.*, p. 64.

34) M. Reu, *Luther and the Scripture* (Columbus, Ohio : Wartburg Press, 1944), p. 4.

교리는 무오 교리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sup>35)</sup>

그리고 Luther는 Augustine이 Jerome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나는 성경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이 책들에 대해서만 정확 무오의 경의를 돌릴 것을 배웠다. 나는 이러한 저자들 중의 어느 누구도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한다”(II. 618)고 하였다.<sup>36)</sup> 그리고 Luther는 성경만을 정확 무오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교회의 성경관을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성경은 결코 오류를 범치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sup>37)</sup>

그 외에도 Luther는 “성경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XIX, 1073) 그리고 “성경이 그 자체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XX, 798)는 말로써 성경 무오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거듭 분명히 하였다.<sup>38)</sup>

또한 Luther는 연대기에 관한 분명한 성경의 불일치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성경의 어떤 난제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솔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나의 무지에 대한 경솔한 고백과 함께 결론지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분은 다만 성령뿐이시기 때문이다”(I, 721)고 하였다.<sup>39)</sup>

35) A. Skevington Wood, *Captive to the Word : Martin Luther (Doctor of sacred scripture)* (Exeter, Eng. : Paternoster Press, 1969), p. 144. Wood는 여기서 “Luther의 영감 교리는 무오의 교리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Eugene F. A. Klug, *From Luther to Chemnitz, on Scripture and the Word* (Kampen : J. H. Kok, 1971), pp. 105~114. Klug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함.

36) *Luther's Works*, II. 618; cf. John W. Montgomery, “Lessons from Luther on the Inerrancy of Holy Writ,” *God's Inerrant Word*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p, INC, 1974), p. 84.

37) *Luther's Works*, XV, 1481; cf. Clark H. Pinnock, *op. cit.*, p. 2.

38) *Luther's Works*, IX, 1073, XX, 798; cf. Harold Lindsell, *op. cit.*, p. 57.

39) *Luther's Works*, I, 721; cf. Theodore Engelder,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 무오에 대한 Luther의 이러한 명백한 신앙 고백은 그의 저술들 속에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M. Reu<sup>40)</sup>와 J. Theodore Muller<sup>41)</sup> 그리고 Robert Preus<sup>42)</sup> 같은 학자들은 그들의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루터주의자들이 Luther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사실상 마음 속에 ‘성경’(Scripture)을 생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생각 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Köstlin<sup>43)</sup>과 Kooiman<sup>44)</sup>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리고 Philip Watson도 “Luther에게 있어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조차도 종속적이며 파생적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말씀의 전달 수단이 됨으로써, 그 성경에 권위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45)</sup>

또한 선정통주의 신학자인 J.K.S. Reid에게서도 이 문제가 반복하여 나타났으며, 그는 결국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Six Objections to Verbal Inspiration Examined in the Light of Scripture  
(St. Louis, Mo. : Concordia, 1944)

- 40) M. Reu, *Luther and the Scripture* (Columbus, Ohio : Wartburg Press, 1944)
- 41) J. Theodore Muller, “Luther and the Bible,”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 Eerdmans, 1957)
- 42) Robert Preus,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 A Study of the Theology of the Seventeenth Century Lutheran Dogmaticians* (London, 1955)
- 43) Julius Köstlin, *The Theology of Luth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errancy*, trans. from the 2d German, ed. Charles E. Hay (2Vols. ; Philadelphia ; Lutheran Publication Society, 1897), II, pp. 252~257.
- 44) Willen Jan Kooiman, *Luther and the Bible*, trans. John Schmidt (Philadelphia ; Muhlenberg, 1961)
- 45) Philip S. Watson, *Let God Be God ! ; An Interpretation of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London ; Epworth Press, 1947), p. 175.

“Luther에게 있어 성경은 그 말씀(The word)이 아니고, 다만 그 말씀에 대한 증거(witness)일 뿐이다.”<sup>46)</sup>

사실상, Luther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였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자주 표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uther가 언제든지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여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더욱이 Luther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성경을 의미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있다. Luther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말로 사용하였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521년 웜스(Worms)에서 Charles V에게 한 그의 최종적인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의하여 묶여 있으며 나의 양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으며, 그리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인정하지도 않으며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sup>47)</sup>

그리고 1537년 Wittenberg 회중들에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성육설에

---

46) J. K. S. Re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 A study of the Reformation and Post-Reformation Understanding of the Bible* (London : Methuen, 1957), p. 72 ; Reid는 성경을 계시와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그 자체로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다만 계시에 대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Karl Barth의 성경관을 Luther에게 돌림으로 Luther의 성경관을 왜곡하였다 ; cf. Cornelius Van Til, *Karl Barth* (이상근 역 : 「칼 바르트」,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7), p.13.

47) *Luther's Works*, XXXII, 112.

대해 말한 것을 믿도록 권유할 때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릅니다”고 하여<sup>48)</sup>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분명히 Luther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The Words of God Written and The Word of God Incarnate)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리고 이 둘 모두가 완전히 믿을 만하여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그리고 또한 만약 Luther가 확실하게 성경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가 다만 기독교적인 자료만을 무오하게 생각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 모든 순수한 성경은 그리스도적이었으며, 그리고 그 성경의 모두는 무오한 것이었다.<sup>50)</sup> 또 어떤 이들은 Luther가 구약의 래위기와 에스더서,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히브리서 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들의 정경성을 의심하였다고 함으로서 이것을 루터의 성경 무오를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Luther의 문제, 특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에 대해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Luther가 여기서 무오의 문제 보다도 오히려 정경성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였다.<sup>51)</sup> 그리고 실제 야고보서에 대한 언급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야고

48) *Luther's Works*, XXII, 6; cf. Mark A. Noll, "The Word of God the Bible ; A View from the Reformation,"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VIII, No. 1, 1978, p. 27; Noll은 이 논문 pp.26~27에서 계속 이러한 Luther의 증거를 많이 나열하고 있다. (*Luther's Works*, XLIV, 207; XXXVI, 124; XL, 36 : XLIV, 204)

49)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p. 58~59.

50) John W. Montgomery, *op. cit.*, p. 67.

51) Mark A. Noll, *op. cit.*, p. 27; cf. John W. Montgomery, *op. cit.*, p. 78.

보서를 더 훌륭하고 근본적인 책들, 곧 복음서들이나 바울의 주요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도적 기원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그 책의 교리적 중요성의 관점에 비추어 단순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것뿐이다.<sup>52)</sup> 루터는 축자 영감의 교리를 분명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Calvin은 그의 기독교 강요와 성경 주석들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엄격한 정통적 완전 축자 영감론과 무오 교리를 확고히 견지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진정성(眞正性)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칼빈의 중심적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분명한 예문(例文)들을 우리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수단으로 성경책만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하늘로부터 발설(發說)된 것임을 확신하는 데서만 그 권위가 생길 수 있다.”<sup>53)</sup>

여기서 Calvin은 성경을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진 진리로서 확신하였고, 또한 같은 장에서 칼빈은 이러한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2) R. L. Harris, *op. cit.*, pp. 68~69.

5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XXI, ed. by J. Baillie, J. T. McNeill and H. P. Van Duse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I, VII, 1.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곧 성경의 교리가 신적이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위에 확고히 서려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확신해야 한다.”<sup>54)</sup>

Calvin은 계속 부언하여 말하기를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여서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와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다.<sup>55)</sup> 이처럼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표시해야만 하는 것과 동일한 그 경의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록들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sup>56)</sup> 그리고 Calvin은 사도들의 이러한 신적으로 영감된 기록들과 그들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감받지 못한 기록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확실하고 권위있는 필기자(筆記者)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계승자들은 다만 성경에 게시되고 수록된 것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sup>57)</sup>

54) Calvin, *Inst.*, I. VII, 4.

55) Calvin, *Inst.*, I. VII, 5.

56)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3), p. 91.

57) Calvin, *Inst.*, VI. VIII, 9.

비록 칼빈이 성경 저자들의 개성(personality)의 충분한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는 종종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은 것으로서 언급하였다. 예언적 말씀에 대하여 언급한 어떤 곳에서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역사들이 추가되어졌는데 그 역사는 선지자들의 저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구술(口述)하여 준 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었다.”<sup>58)</sup>

이와 동시에 칼빈은 이러한 사실이 신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믿어지지 않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sup>59)</sup> 오늘날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분명히 기계가 아닌 성경 저자들이 하나의 단순한 기계로서 취급을 받게 될까 염려해서 ‘받아쓰여짐’(dictated)이란 용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Edward A. Dowey는 R. Seeberg, O. Ritshl, A.M.Hunter 등이 ‘필기 이론’(dictation theory)을 칼빈에게 명백히 돌리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도 그들과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다.<sup>60)</sup> 그리고 Warfield도 ‘받아쓰기’(dicta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언어가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칼빈의 생각은 그 방식이 받아쓰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가 마치 받아쓰기에 의한 것과 같음을,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작물은 모든 인간적 혼합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

58) Calvin, *Inst.*, IV. VII, 6.

59) Calvin, *Inst.*, I. VII, 4.

60) Edward A. Dowey, *op. cit.*, pp. 101~102.

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일은 Calvin에 의하면 그 것이 ‘축자적’ 또는 ‘바유적’ 받아 쓰기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 결과는 그들 원본에 있어 오류가 없는 일련의 문서들이 되도록 주어졌다는 점이다.”<sup>61)</sup>

디모데후서 3:16에 대한 성경 주석에서도 Calvin은 성경의 신직 기원과 무오 교리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임의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직 감동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이는 사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입 자체라고 확신있고도 대담하게 증거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 대한 것과 동일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유래되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62)</sup>

그리고 베드로후서 1:20의 주석에서는 “성령은 그 자신의 지성 속에서처럼 그들의 입도 주관하셨다”<sup>63)</sup>고 했으며, 또한 로마서 15:4의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도 혼되거나 무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sup>64)</sup>

61) James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 Eerdmans, 1958), pp. 78ff;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61.

62) John Calvin, “The Epistle to Timothy,” *Calvin’s N. T. Commentaries*, Vol. 10, trans. T. A. Smail, eds.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 Eerdmans, 1964), p. 330.

63) John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St. Peter,” *Calvin’s N. T. Commentaries*, trans. W. B. Johnston (1963).

64) John Calvin, “The Epistle to Romans,” *Calvin’s N. T. Commentaries*,

그러나 성경의 영감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견해가 17세기의 개혁주의 교리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완전 축자 영감의 고등한 교리(the high doctrine of plenary verbal inspiration)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sup>65)</sup>

특히 Charles A. Briggs<sup>66)</sup>와 E. Doumergue<sup>67)</sup> 그리고 A. H. Strong<sup>68)</sup>은 칼빈이 여자적 축자 영감론을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의 오류에 대한 인정이 칼빈의 가르침과 사상에도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예리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한 학자들 중에 Edward A. Dowey는 “칼빈의 저서들 중에서는 원본 성경의 유오성(有誤性)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69)</sup> 그리고 Kenneth S. Kantzer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칼빈이 엄격한 정통적 축자 영감 교리를 전지했음을 지지해 주는 증거는 너무도 명약 관화한 것이어서 그의 입장을 새삼스럽

trans. R. Mackenzine (1960).

65)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0)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 사상」, 나 용화 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76), p. 17.

66) Charles A. Briggs, *The Bible ; the church and the reason* (New York : Scribner, 1892), pp. 24, 112, 115, 116, Brigg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Calvin이나 Luther, 그리고 그밖의 다른 개혁자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Calvin의 경우 성경의 무오는 오류와 양립한다.”

67) E. Doumergue, *La Pens'ee religieuse de Calvin*. Vol. IV (Lausanne : G. Bridel and Cie, 1910), p. 78. 그는 Calvin이 성경의 단어들을 중요시하지 않고 ‘교리’ 즉 영적 교리인 본질적 내용만을 중요시했다고 하였다.

68)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I (Philadelphia : The Judson Press, 1907), p. 217.

69) Edward A. Dowey, *op. cit.*, p. 100; cf. Harold Lindsell, *The Bible in the Balance*, pp. 201~202.

개 밝혀 내려는 노력은 거의 모두 적선(積善)에 불과한 것 같다.<sup>70)</sup>

“칼빈은 계속해서 성경을 ‘확실하며 그리고 정확 무오한 기록’으로 언급하고 있다. 칼빈 주석들을 다만 일별해 보기만 해도 단번에 그 개혁자가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의 엄격한 축자적 무오교리를 그의 성경 주석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sup>71)</sup>

또한 Briggs는 Benjamin Warfield가 사실의 무오를 논증할 수 없게 되자 무오는 오직 원본에 속한다는 생각을 다시 고안해 내었다고 비평하였다. 이에 대해 E.A.Dowey는 이미 칼빈도 성경에 있는 사소한 난해점들은 예외없이 모두 사본자들의 오류로 돌리고 결코 영감받은 원저자들에게 돌리지 않음으로서 원본은 모든 것에 있어 정확 무오한 것으로 논증하였다<sup>72)</sup>고 한다.

신약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구들을 취급한 칼빈의 주석은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히브리서 11:21과 원문인 창세기 47:31과의 차이점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례적인 설명을 하였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들이 아직 우유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무식한 자들에게 자신들을 조정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정밀하지 못했다. 만약 항상 독자들이 성경의 순수한 원본의 의미에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험도

70) Kenneth S. Kantzer,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 Eerdmans, 1957), p. 137.

71) *Ibid.*, p. 147.

72)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 59.

없다. 실제 있어서 차이점이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야곱이 경배했다는 사실은 은혜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으며,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자신을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었다.”<sup>73)</sup>

여기서 Calvin은 이전처럼 이것을 사본상의 오류로 돌리려 하지 않고, 사도들이 이 사소한 것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영감받은 저자들의 습관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John Murray가 지적한 바대로 Calvin의 이러한 말은 그가 성경의 무오성을 믿었다는 입장을 해치는 가장 위협적인 난제이다. 왜냐하면 Calvin은 여기서 사소한 역사적 사실의 오류는 영감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원본 성경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저자들이 받은 영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sup>74)</sup>

그러나 우리가 Calvin의 약점과도 같아 보이는 이 말을 전체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Calvin이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무오한 영감도 믿었다는 사실과, 이 말을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Calvin의 다른 가르침들과 보다 광범위하게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Calvin은 이 문제 외에도 마태복음 27:9, 사도행전 7:14-16 등에 나타난 인용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모든 것을 오직 사본

73) John Calv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W. B. Johnston (1963) Vol. 12, p. 175; (창 47:31)에서 인용한 것으로 동일한 자음을 아래에 모음들이 다르게 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떤 모음이 불으면 그 단어의 뜻은 ‘침상’ (창 47:31)이 되고, 다른 모음이 불으면 그 뜻은 ‘지팡이’가 된다(히 11:21). 이 차이점은 본질적으로는 결코 심각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사본 과정의 오류로서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볼 때 ‘지팡이’가 더 타당하다.

74) John Murray, *op. cit.*, p. 24.

복사자들의 실수로 인한 사본상의 와전(訛傳)으로 간주하였으며, 영감 받은 성경의 원저자에게는 전혀 과오가 있을 수 없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sup>75)</sup> 물론 Calvin도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언급하였을 때, 구약의 구절들을 여자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음과 수자나 작은 사건과 같은 세부적인 것에까지 성경의 저자들이 항상 정밀하지 않았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저자의 정확성에 대한 Calvin의 열심은 오히려 그러한 각 경우에 있어서도 사도들을 항상 정당화시켜 주고 있으며, 그 구절들은 여전히 오류 없는 완전한 영감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그 구절들을 인용할 때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통한 무오한 영감에 의하여 오히려 그 본래적 의미가 처음보다 더 잘 전달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누구도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 원본과는 다른 언어를 대용하여서도 새로운 문맥에서 그의 목적을 오류없이 오히려 더 잘 표현 하실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sup>76)</sup>

그러므로 Calvin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주석에서 “사도들이 … 무식한 자들에게 자신들을 조정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꼼꼼하지 못 했다”고 말했을 때, 사실상 Calvin이 마음 속에 두었던 생각은 정확한 인용의 말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당시 상황이나 의도에 적합한 말의 요구 사이에 어떤 구별을 지우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sup>77)</sup> 바울은 간혹 이러한 성령의 요구에 의하여 구약과는 달리 표현하였으나, 그러나 그 성경 원본 자체는 항상 무오한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75)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p. 59~60.

76) John H. Gerstner, *op. cit.*, p. 39.

77) John Murray, *op. cit.*, p. 48.

Rogers는 Calvin이 창세기 주석에서 성경의 과학적 오류를 인정한 것처럼 소개하였다.<sup>78)</sup> 모세가 창세기 1:15, 16에서 달을 두 개의 큰 빛들 가운데 하나로 불렀으나, 이미 Calvin 시대의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지구로부터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달보다 그 빛이 작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토성이 더 큰 빛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그러한 과학적 결론을 충분히 인지한 Calvin은 성경의 과학적 무오에 대하여 성경 저자들은 단순히 대중적인 문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대중적인 문제는 구태여 과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조화가 될 리도 없다고 하여 사실상 과학적 오류를 인정하였다고 추론하였다.<sup>79)</sup> 그러나 여기에서 Calvin이 말한 대로 모세는 자연적인 눈에 나타난 (appear)대로의 그 사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천문학자는 망원경에 있는 (are) 그대로의 사물들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천문학자가 토성이 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appear)고 한다면, 그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모세가 달이 토성보다 크다(is)고 한다 해도 오류를 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Rogers가 비록 Calvin이 모세에게서 과학적 오류를 인정한 것처럼 제시할지라도 Calvin은 전혀 모세에게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sup>80)</sup> 그래서 Calvin은 우리가 대중적이며 협학적인 언어로 쓰여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자연 과학(특히 천문학)을 배우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sup>81)</sup>

78) J. B. Rogers, *op. cit.*, pp. 28~29; Cf. John Calvi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Calvin’s O.T. Commentaries*,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48), pp. 86~87.

79) John H. Gerstner, “*The Church’s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p. 40.

80) *Ibid.*

81) J. I. Packer, “*Calvin’s View of Scripture*,” *God’s Inerrant Word*, ed. John

Luther와 Calvin의 이러한 사상과 성경의 정확 무오를 부인하는 현대 저자들을 비교해 볼 때 누구나 정확 무오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와 현대의 반대자들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대 반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훼손시키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려”(마 23:24)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혁자들의 태도는 경외와 겸손, 그리고 그 성경을 권위있고 정확 무오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수납하려 하였다.<sup>82)</sup>

### (3) 신조서들의 증거(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Belgic Confession)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 신앙의 유산인 신조서들 속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확신과 일치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그 범위와 명료성, 그리고 그 정확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며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조서이다.

제1장 ‘성경에 관하여’(Of the Holy Scripture)에서 비록 ‘무오’(Inerrancy)라는 단어 그 자체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상당 이

W. Montgomery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p. INC, 1974), p. 106 ; cf. John Murray, *op. cit.*, p. 48.

82) Harold Lindsell, *op. cit.*, p. 62.

83) John H. Gerstner, *op. cit.*, p. 42; cf. 고백서 14장 2절에 “이 믿음으로써 한 신자는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Whatsoever) 참된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pp. 62ff) ; R. L. Harris, *op. cit.*, p. 66.

구들만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무오가 이 신앙 고백서의 명백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한다.<sup>83)</sup>

그러나 Jack B. Rogers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무오’에 대한 주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그 용어는 19세기 자연신론자들(Deists)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것을 앞세워야 한다고 느꼈던 옛 프린스턴(Old-Princeton)신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Rogers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은 신앙 고백에서 진술된 바 성경은 진리요 정확 무오(infallible)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을 무오(inerrancy)의 근대적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증거의 표준들과 그들의 사상에는 없었던 변증법적 암시들을 강요하는 것이다.”<sup>85)</sup>

이처럼 Rogers는 근대 성경 옹호자들이 과학적 비평주의 이전 시대의 그 성직자들이 결코 취급하지도 않았던 교리의 출처를 그 성직자들의 것으로 추정하는 잘못을 범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B.B. Warfield와 C.A. Briggs와의 논쟁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졌다.<sup>86)</sup>

84) J.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 Problem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 American Presbyterianism* (J. H. KOK N. V. Kampen, 1966), pp. 305~307.

85) *Ibid.*, p. 307, Rogers가 여기서 말하는 무오의 ‘근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과학, 지리, 우주론에 있어서의 무오를 말한다.

86)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Cherry Hill, N. T.:

Warfield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저서들을 자세히 다루면서 그 저서들이 분명히 성경 오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경의 원본은 내용과 단어에 함께 영감되었다”<sup>87)</sup>는 John Ball의 교리 문답과 모든 성경을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보존한 하나의 영향력 아래 쓰여진 것으로 간주한<sup>88)</sup> S. Rutherford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들은 무오류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실수할 수가 없다”<sup>89)</sup>고 한 Richard Capel의 말과 “여떠한 오류도 모순도 성경 안에는 없으나, 어떤 사본에는 보존자, 사본자, 출판자, 혹은 번역자들의 실수에 의하여 있을 수도 있다”<sup>90)</sup>고 한 Richard Baxter의 말을 간단하게 인용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아서도 만일 당시의 성직자들이 19세기의 프린斯顿 신학교 교수들의 입장에 직면하였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Warfield와 동일한 입장을 주장하였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사실상 Rutherford와 같은 몇몇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은 당시 영국 성직자들보다 오히려 Warfield와 더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배경을 가진 옛 프린斯顿 학교는 틀림없이 Rogers가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바로 그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전통을 따랐음이 틀림없다.<sup>91)</sup>

그리고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이 원래 의도하였던 1장 6

Mack Publishing Co., 1972), pp. 261~333 : 이 4장은 “The Doctrine of Inspiration of the Westminster Divines,”라는 제목으로 *The Presbyterian Quarterly*, VIII, 1894, pp. 17~76에 게재되었다.

87) *Ibid.*, p. 266.

88) *Ibid.*, p. 270.

89) *Ibid.*, p. 268

90) *Ibid.*, p. 273.

91) W. Stanford Reid,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No. 32~33 (1968), p.67.

절의 주제를 A. A. Hodge와 같이 성경의 ‘충족성’(sufficiency)과 ‘완전성’(perfection)이 아니라, 성경의 전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였다.<sup>92)</sup> 또한 Rogers는 A. A. Hodge가 이 6절을 강해할 때, ‘영감된 신약 성경은 신앙과 실제의 완전한 법칙’이라고 하여 성경을 인간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백과 사전과 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신앙 고백서의 핵심적인 관심을 무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sup>93)</sup> 물론 6절의 주제는 성경의 목적을 밝힌 것으로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6절은 Warfield와 Hodge가 밝혔던 대로 그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sup>94)</sup> 그리고 Rogers가 성경의 목적인 구원 내용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성직자들에게 있어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는 백과 사전은 아니었다<sup>95)</sup>고 말한 것은 필연적인 성경의 완전성과 무오 교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주로 의도하는 바가 구원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며 형식적인 세목들은 전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Rogers는 여기서 분명히 ‘구원 내용’(saving content)과 ‘구원 맥락’(saving context)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해

92) J.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p. 327.

93) *Ibid.*, p. 331.

94) cf. 박 윤선, “해르만 리델보스의 성경관,” 「신학지남」, 제37권 제4집(겨울, 1970), p. 14;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Vo. I, 1967, p. 461; Bavinck도 이 교리를 성경의 충족성, 또는 완전성(Perfectio of sufficiencia)이라고 하였다.

95) J. Rogers, “The Church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Biblical Authority*, p. 34.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이 성경 속에서 서로 불가 분리하게 엮어져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sup>96)</sup>

사실상 Rogers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자기의 연구 기반을 신조서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두었다. 그는 신조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이 불가피하게 그들 시대의 철학과 다른 여러 가지 영향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신앙 고백서도 바로 이 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97)</sup> 그래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해석할 때도 역사적 이해에 계속 호소하면서 당시 성직자들이 의도한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마침내 G. C. Berkouwer와 같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sup>98)</sup>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함으로 그 고백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교리의 체계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자연히 Warfield와 Hodge가 주장한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 그리고 무오성에 대한 교리를 간과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조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방법은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교리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신조서들의 역사적 제한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오히려 그 모든 교리적 진술들을 상대화시키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찍부터 우리가 진리로 믿어 왔던 중요한 교리들을 포기하게 하며,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론적인 변증의 약화를 가져오는 위협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96) John H. Gersther, *op. cit.*, p. 44.

97) J.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p. 455.

98) cf. Cornelius Van Til, *The Sovereignty of Grace: An Appraisal of G. C. Berkouwer's View of Dordt*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9), pp. 32ff; Carl Bogue, *A Hole in the Dik: Critical Aspects of Berkouwer's Theology* (Mack Publishing Co., 1969), p. 8.

벨직 신앙 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도 그 고백서 작성 당시에는 그 용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오’(inerrancy)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정경서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제4항은 “우리는 성경이 두 책들 속에 즉 신약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믿는다”<sup>99)</sup>고 하여, 성경은 이미 정확 무오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성경을 반항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5항에서도 성경의 정확 무오를 전제하는 중요한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규칙과 기초, 그리고 확정을 위하여 이 모든 책들을 수납한다. 그리고 이 책들만을 거룩하고 정경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며 그 책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없이 믿는다(believing without any doubt, all things contained in them).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증거하기 때문이다.”<sup>100)</sup>

이것은 성경책들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 성경이 정확 무오하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내포된 ‘모든 것들’(all things)을 의심없이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모든 것들’(all things)이라는 용어 속에는 그 어떤 제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항은 성경의 충족성(sufficiency)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고 강한 진술을 하고 있다.

99) Homer C. Hoeksema, “In the Beginning God...”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74), p. 21.

100) Marold Lindsell, *The Bible in the Balanc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p. 79.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충족하게 가르쳐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정확 무오한 법칙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전 마음을 쏟아 거부한다.”<sup>101)</sup>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적 진술들은 적극적인 견지에서 영감과 정확 무오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잘 증거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무오 교리가 교회의 역사적 신앙 속에서 어떻게 전수되어 왔느냐를 살펴보았다. 교회 속에서 나타난 모든 교사들이 하나같이 모두 그 교리를 확증하고 명백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통 교회의 지배적인 보편 일치점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의 일관된 가르침은 항상 성경 무오 교리를 꾸준히 견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역사적 증거 자료들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상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이 종종 그들로부터 부당하게 끌어 내는 잘못된 추론 때문임을 알 수 있다.<sup>102)</sup>

#### 4. 성경의 무오에 대한 복음주의 논쟁\*

#### 5. 성경의 무오와 비평주의\*\*

101) Homer C. Hocksema, *Ibid.*, cf. Rene Pache, *op. cit.*, p. 238.

102) cf. Carl F. H. Henry, “The House Divided: An Interview with Carl Henry,” *Eternity* (October, 1976), p. 38. “그것은(무오) 예수의 견해였으며, 사도와 교회 교부들과 그리고 제2차 바티칸 회의에 이르기까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였다. 종교 개혁자들을 그 견해로부터 분리시켜, 그들을 성경적 오류의 편에 두려고 하는 최근래의 노력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 한다.” ; \*\*. 「교회 문제 연구」 제2집 참고.

## 6. 성경의 무오와 권위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 이른바 성경 무오를 둘러싼 복음주의 내의 심각한 논쟁, 성경 비평학파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 성경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을 결국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집약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엄정하고 높은 성경 무오 교리를 주장해야 하는 근본 이유도 그것이 성경 권위와 생명적인 연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의 귀납적 결론으로서 성경 무오와 권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성경의 권위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대전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sup>1)</sup> 오늘날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성경이 권위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성경이 권위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성경 권위의 본질이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경 권위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그 권위의 소재(locus)에 관한 문제로 집약되어진다.<sup>2)</sup>

이러한 성경 권위의 소재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의 정확 무오를 그 성경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이 정확 무오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종종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무오류에 근거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한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John F. Walvoord는 그의 논문〈The Pragmatic Confirmation of Scriptural

1) H. Ridderbos, *Studies in Scripture and its Authority*, p. 20.

2) N. Shepherd, *The Nature of Biblical Authority*, p. 1; cf. Calvin. Institutes, I, VII, 1.

*Authority*에서 “성경이 그 원본에 있어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가르침은 기독교 신학과 윤리학, 그리고 경험의 해석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sup>3)</sup>고 함으로써 성경의 권위가 마치 성경의 무오에 근거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물론 Walvoord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권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의 말은 그 문맥상으로 보아 성경의 권위가 그 무오성에 근거한다는 통속적 개념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Klaas Runia는 *〈The Authority of Scripture〉*에서 “성경의 권위는 무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C. Hodge, A. A. Hodge, B. B. Warfield, J.G. Machen, E. J. Young 등 일련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마치 성경의 권위가 무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곡해하였다.<sup>4)</sup> 그러나 실상 이들은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예를 들면 Runia가 인용하여 지적한 C. Hodge의 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한다면, 그 성경은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복종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성경은 그 자체에 신적 권위를 돌리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며,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있어 정확 무오하게 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sup>5)</sup>

그러나 우리는 Hodge의 이러한 진술 속에서 성경의 권위가 그 정

- 3) J. F. Walvoord, “The Pragmatic Confirmation of Scriptural Authority”, *The Bible: The Living Word of Revelation*, ed. Merril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Pub. Co., 1976), p. 179.
- 4) K. Runia, “The Authority of Scrip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IV, No. 2, 1969, pp. 176ff.
- 5)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 p. 166.

확 무오에 근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시는 찾아볼 수 없다. Hodge는 여기서 만약 성경에 신적 권위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곧 성경의 모든 교훈이 정확 무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말하자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정확 무오는 그 권위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Hodge의 진술들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

“성경의 정확 무오와 신적 권위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sup>6)</sup>

“모든 성경 저자들은 어디에서나 개인적인 권위를 부정한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의 의무를 그들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전달자들로서, 증인들로서, 기관들로서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권위에 의하여 그 말은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져야만 한다고 선언한다.”<sup>7)</sup>

이러한 진술들은 Runia의 지적과는 달리 Hodge가 결코 정확 무오에 성경의 권위를 의존시킨 것이 아니며, 우선권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 성경의 신적 권위에 주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 권위는 동시에 정확 무오를 동반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6) *Ibid.*, p. 153.

7) *Ibid.*, p. 161.

K. Runia는 Warfield에 관하여서도 “B. B. Warfield는 성경 무오를 먼저 언급하고, 그 후에 권위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정확 무오와 또는 그 신뢰성에 거듭하여 우선권을 주고 있다”<sup>8)</sup>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Warfield가 실제 서술한 그 말의 순서는 성경의 권위가 정확 무오로부터 연유되었다는 결론을 거의 정당화하지를 못한다. Runia가 지적한 Warfield의 두 진술들은 다음과 같다.

“설사 성경을 산출하는 영감이 그 성경을 확실하고 권위있는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에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성경에 확실성과 권위를 부여해 준다.”<sup>9)</sup>

물론 Warfield는 여기서 말의 순서상으로 확실성을 권위보다 앞세우고 있으나, 그는 동시에 확실성과 권위는 둘 다 영감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Warfield는 구약에 관하여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그 신성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그 신성은 그 확실성 속에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sup>10)</sup> 성경의 권위와 확실성은 둘 다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Scriptura est verbum Dei*)고 하는 그 신성의 사실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가 그 정확 무오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그 무오성에 기초한다는 주장을 반대

8) Klaas Runia, *op. cit.*, p. 176.

9)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61; cf. Edward J. Young, *op. cit.*, p. 27.

10) *Ibid.*, p. 150.

하는 이유는 단순히 James Orr가 지적한 대로 “만약 우리가 상세한 세목에 이르기까지 성경 기록의 ‘무오’를 논증할 수 없다면, 계시 종교에 대한 신앙의 전 체계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sup>11)</sup>는 소위 그 ‘자멸적 태도’(suicidal position)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무오에 기초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오히려 무오를 논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결코 어떤 한 전문가의 권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음과같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sup>12)</sup>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저자권, 즉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저자권을 확증해 주는 다른 그 어떤 증거에 의존해 있는 것은 아니다.<sup>13)</sup>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비록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그

11) James Orr, *Revelation and Inspir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9), pp. 197~198.

12)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4절”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수정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위원회, 1974), p. 16.

13) John Murray, *op. cit.*, pp. 78~79; cf. John Murray, “The Attestation of Scripture”, *The Infallible*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8), p. 45.

정확 무오에 기초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확 무오에 대한 도전은 곧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다.<sup>14)</sup> 그래서 Grosheide도 “만일 어떤 거짓과 어떤 오류가 발견되면 모든 권위는 무너질 것이다”<sup>15)</sup>라고 주장했고 같은 입장에서 Schilder는 성경의 모순을 사냥함으로써 성경을 조롱한 당대의 비평가들을 맹렬히 공격하면서<sup>16)</sup> “만일 성경의 무오가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도 무너진다”<sup>17)</sup>는 전제하에 성경 무오 권리를 강력하게 변증하였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그의 말씀은 정확 무오하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확 무오에 도전하는 것은 그 말씀의 신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성경의 신성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정확 무오와 권위는 함께 정립되고, 또한 함께 와해되어지는 밀접한 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논리는 자주 조롱을 받아 왔으나, 그러나 좀처럼 쉽게 논박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권위와 무오는 동일하지 아니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기초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들은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한 하나님 말씀의 양면들로서 서로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sup>19)</sup>

## 7. 결론

14) Norman Shepherd, *op. cit.*, p. 5.

15) F. W. Grosheide, “Dan Mag geen leugen, geen fout kunnen Voorkomen, of het gezag veralt,” *Schriftgezag, schild en Prijl*, I (1919), p. 2.

16) K. Schilder, *Omwoord* (1919), III, p. 70.

17) *Ibid.*, p. 64.

18) Harold Lindsell, *op. cit.*, p. 39.

19) Klaas Runia, *op. cit.*, p. 178; Herman Ridderbos, *op. cit.*, p. 22.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면에서 전혀 오류가 없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작은 인간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의 상황과 학문에 발을 맞춰 종전의 무오, 영감, 권위 등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정의하려는 현대 신복음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전통적인 성경의 무오와 영감 및 권위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것은 저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도그마적인 합리성의 집착 때문이다.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의 요구와 가르침에 겸손히 경청하고 승복하려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엄정하고 높은 수준의 성경관을 고수하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자기 주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하한 인간적 이해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성경관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그들의 성경 접근과 이해에 있어서 그들의 접근, 사상, 생각을 먼저 성경 자체의 도전과 검토의 대상에 두기보다 오히려 오늘의 철학 사조와 과학 사상에 감염된 그들의 이성적 사고 그 자체를 성경 접근과 이해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 그 자체에 의하여 비평을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다. 지난 2세기 동안의 파괴적인 비평학의 유산과 Barth, Bultmann 등을 위시한 현대의 신정통주의 신학 및 실존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저들의 신학 방법론 및 사고력, 그 자체가 성경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거듭거듭 천명해야 할 주장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므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동시에 정확 무오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은 논리적인 최종 명제로서 그것을 비판할 다른 무엇은 없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해 능력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성경 현상의 불일치와 모순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의 무오를 하나님의 인격의 신뢰와 함께 끝까지 지키고 또한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무오는 결코 성경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이끌어 낸 귀납적 결론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 근원하고 있는 연역적 추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접근할 때마다 사무엘이 말한 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하는 겸손한 자세에 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간 하배. 「현대 신학 해설」. 서울 : 한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70.
- 박 형통. 「교의 신학」, 제1권(서론). 서울 : 백합출판사, 1964.
- 한 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0.
- Bavinck, Herman. *Our Reasonable Faith: A Survey of Christian Doctrine*. Trans. H. Zylstra. Grand Rapids : Eerdmans, 1956.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 J. H. KOK, N. V., 1928 third ed., Vol. I.
- Berkouwer, G. C. *Holy Scripture*. Grand Rapids : Eerdmans, 1975.

- Berkhof, Louis.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9.
- \_\_\_\_\_. *Introduction to the NT*. Grand Rapids : Eerdmans, 1915.
- Beeagle, Dewey B.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3.
- Boettner, Loraine. *Studies in theology*.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1.
- \_\_\_\_\_.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72.
- Boer, H. R. *Above the Battle: the Bible and its Critic*. Grand Rapids : Eerdmans, 1977.
- Bogue, Carl. *A Hole in the Dike: Critical Aspects of Berkouwer's Theology*. Mack Pub. Co., 1969.
- Briggs, Charles A. *The Bible: The Church and the Reason*. New York : Scribners, 1892.
- Bruce, F. F. *Tradition: Old and New*.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 Dewolf, L. Harold. *Present Trends in Christian Thought*.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60.
- Dowey, Edward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 Bultmann, R.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1948.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유동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79.
- \_\_\_\_\_.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공관 복음

- 전승사, 허 혁. 대한기독교서회, 1971.
- Custer, Stewart. *Does Inspiration Demand Inerrancy?* Nutley, New Jersey : The Craig Press, 1968.
- Carnell, Edward J. *The Case for Orthodox Theology.*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9.
- Gerstner, John H. *A Bible Inerrancy Primer.* Grand Rapids : Baker House, 1965.
- Guthrie, Donald. *NT Introduction : the Gospel & Acts.* Chicago, 1965.
- Gaussin, S. R. L. *Theopneustia : The Bible. Its Divine Origin and Inspiration.* trans. David D. Scott. Cincinnati, Boston and New York; Blanhard, 1859.
- 
- Gaussin, S. R. L. *The Plenary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 Chicago : The Bible Institute Colportage Association, n. d.
-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s.* trans. David D. Scott. Chicago : Moody Press, n. d.
- Harris, R. Laird.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1957. 「성경의 영감과 정경」. 박 종칠 역.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 Grand Rapids : Eerdmans, 1970.
-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28.
- Hocksema, Homer C. *In the Beginning God...* Grand Rapids :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74.
- Jewett, Paul King. *Emil Brunner's Concept of Revelation.* London :

- Clarke, 1954.
- 
- Käsemann(ed.)
- Köstlin, Julius.
- Klug, Eugene F. A.
- Kuyper, A.
- Kuitert, H. M.
- Kooiman, Willen Jan.
- Ladd, G. E.
- Lindsell, Harold.
- 
- Lightner, Robert P.
- Marshall, I. Howard.
- Man as Male and Female.* Grand Rapids : Eerdmans, 1975.
- Das Neue Testament als Kanon.* Göttingen, 1970.
- The Theology of Luth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errancy,* from the 2d German. Ed, Charles E. Hay, 2Vols. Philadelphia : Lutheran Publishing Society, 1897 II.
- From Luther to Chemnitz, on Scripture and the Word.* Kampen : J. H. KOK, 1971.
-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54.
- Do you Understand What you Read?* Grand Rapids : Eerdmans, 1970.
- Luther and the Bible.* Trans. John Schmidt. Philadelphia : Muhlen berg, 1961.
- The New Testament and Criticism.* Grand Rapids : Eerdmans, 1967.
- The Battle for the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The Bible in the Balanc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 The Saviour and the Scriptur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6.
-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Grand Rapids : Eerdmans Co., 1977.

- Matthews, Victor M. *Neo-Evangelicalism*. Des Plaines III : Regular Baptist Press, 1971.
- Martin, Ralph. *New Testament Foundations* : A Guide for Christian Students. Grand Rapids : Eerdmans, 1978.
- Machen, J. G. *The Attack upon Princeton Seminary* : A Plea for Fair Play. Philadelphia : Johnson and Prince, 1927.
- Maier, Gerhard. *The End of the Historical Critical Method*. Trans. by Edwin W. Leverenz & Rudolph F. F. Norden. 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7.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0.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 용화 역. 예수교문서 선교회, 1976.
- 
-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2.
- Nash, Ronald H. *The New Evangelicalism*.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3.
- Orr, James. *Revelation and Authorit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9.
- Pache, Rene.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Scripture*. Trans. Helen I. Needham. Chicago : Moody Press, 1977.
- Packer, J. I.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 Eerdmans, 1958.
- Pink, Arthur W. *The Doctrine of Revelat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7.
- Pinnock, Clark H.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 New Jersey :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77.
- Preus, Robert.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 A Study of the Theology of the Seventeenth Century Lutheran Dogmaticians. London, 1955.
- Reymond, Robert L. *The Justification of Knowledg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6.
- Reid, J. K. S. *The Authority of Scripture* : A Study of the Reformation and Post-Reformation Understanding of the Bible. London : Methuen, 1957.
- Rogers, Jack B.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 A Problem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 American Presbyterianism. J. H. KOK, N. V. Kampen, 1966.
- Sanderson, John W. *Fundamentalism and Its Critics*. Philadelphia : The Sunday School Times Co., 1961.
- Stevick, B. Daniel. *Beyond Fundamentalism*.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 Seebury, Reinhold. *Text-Book of the History of Doctrine* Vol. I. Trans. Charles I. Ha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6.
- Shepherd, N. *The Nature of Biblical Authority*. A Series of four lectures delivered at the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72.
- Stonehous, N. B. *Origins of the Synoptic Gospel*.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63.
- 
- J. Gresham Machen : A Biographical Memoir.

- Strong, A. H.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55.
- Thomas, Thomas, A.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Nutley,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II.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Van Til, Cornelius.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 Nutley,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Co., 1977.
- \_\_\_\_\_. *The Sovereignty of Grace: An Appraisal of G. C. Berkouwer's View of Dordt*. Nutly, New Jersey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9.
- \_\_\_\_\_. *In Defense of the Faith: The Doctrine of Scripture*. Copyright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48.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57.
- Warfield, B. B.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 \_\_\_\_\_.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Cherry Hill, N. T. : Mack Pub. Co., 1972.
- Wenham, J. W. *Our Lord's View of the OT*. London : The Tyndale Press, 1953.
- Whitcomb, John C. *The Origin of the Solar System: Biblical Inerrancy*

- and the Double Revelation Theory.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4.
- Wood, A. Skevington. *Captive to the Word: Martin Luther*. Exeter, Eng : Paternoster Press, 1969.
- Young, E. J. *Thy Word is Truth*. Grand Rapids : Eerdmans Pub. Co., 1957.

## 2. 단편 논문

- 이 근삼,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성경관.” 「개혁주의」. 통권57호(6, 1973).
- 박 윤선, “개혁주의 소고.” 「신학지남」. 제46권 제3집(185호), 1979, 가을.
- 최 갑종, “예수의 만찬말씀” 고신대신학연구과, 졸업논문. 1976.
- Archer, Gleason L. “The Witness of the Bible to its Own Inerrancy.”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J. M. Boice.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 Bromiley, G. W. “The Church Doctrine of Inspiratio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8.
- Bloesch, D. G. “Crisis in Biblical Authority.” *Theology Today*. Jan., 1979.
- Bruce, F. F. “The History of NT Study.” *NT Interpretation*. Ed. Howard Marchall. Grand Rapids : Eerdmans, 1977.
- Dayton, Donald. “The Battle for the Bible: Renewing the Inerrancy Debate.” *The Christian Century*. November, 10, 1976.

- Dewolf, L. Harold. "A Review of the Case for Orthodox Theology."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October, 1959.
- Fuller, Daniel P. "Benjamin B. Warfield's View of Faith and History." *Evangelical Theological Bulletin*, Vol. II, No. 2 (Spring, 1968)
- Frame, John M. "Scripture Speaks for Itself." *God's Inerrant Wor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ustworthiness of Scripture*. Ed. John W. Montgomery.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Fellowship, INC, 1974.
- Gerstner, John H. "The Church's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James M. Boice.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Guthrie, Donald. "The Historical & Literary Criticism of the NT." *Biblical Criticism*.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Harrison, E. F. "The Phenomena of Scripture,"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 Henry, Carl F. H. "Criteria of Biblical Inerrancy." *Christianity Today*, Vol. II. January, 20, 1958.
- Hill, Joseph A. "The House Divided: An Interview with Carl Henry." *Eternity*. October, 1976.
- "Conflict over Biblical Inerrancy." *Christianity Today*, Vol. XX, No. 16(May, 1976).
- "Dr. George Stob on Infallibility." *Torch and Trumpet*, Vo. IX. January, 1960.

- Jewett, Paul King. "Biblical Authority a Crucial Issue in Protestantism." *United Evangelical Action*, VII(May, 1953).
- Kantzer, Kenneth S.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 Eerdmans, 1957.
- Ketcham, Robrt T. "A New Peril in Our Last Days." *Christian Beacon*, XXI(May, 1956).
- Kraft, C. "Interpreting in Cultural Context."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21, No. 4. 1978.
- Mcquilkin, J. R. "The Behavioural Sciences und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March, 1977).
- Mitschell, John J. "The Inerrancy Conflict a Book Review; The Battle for the Bible by H. Lindsell". *The Presbyterian Guardian*, Vol. 45, No. 6. 1976.
- Montgomery, John W. "Inspiration and Inerrancy". A New Departure, *Bulletin of E.T.S.* Vol. 8, No. 2. (Spring, 1965).
- Murray, John. "The Attestation of Scripture" *Infallible Word*. 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78.

- Muller, J. Theodory. "Luther and the Bible."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w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 Nicale, Roger.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Revelation and the Bible*. Baker Book House, 1958.
- Noll, Mark A. "The Word of God and the Bible: A View from the Reformation."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VIII, No. 1, 1978.
- Ockenga, Harold J. "From Fundamentalism, Through New Evangelicalism, to Evangelicalism," *Evangelical Roots*. Ed. Kenneth S. Kantzer. New York: Thomas Nelson, IN Publishers, 1978.
- \_\_\_\_\_. "Resurgent Evangelical Leadership." *Christianity Today*, Vol. V (October, 10, 1960).
- Packer, J. I. "Calvin's View of Scripture." *God's Inerrant Word*. Ed. John W. Montgomer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74.
- \_\_\_\_\_. "The Necessity of the Scripture." *The Bible: The Living Word of Revelation*. Ed. Merril C. 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 Piper, Otto A. "The Theme of the Bible." *The Christian Century*, LXIII (March, 1946).
- Payne, J. B. "The Biblical Interpretation of Irenaeus,"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 F. Walv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 \_\_\_\_\_. "Ethical Issues in the Responses to the Battle for

- Ramm, Bernard. \_\_\_\_\_.
- Pinnock, C.H. "Evangelical and Inerrancy: The Current Debate." *Theology Today* (April, 1978)
- Reid, W. Stanford.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No. 32~33. 1968.
- Ridderbos, Herman. "Reversals of OT Criticism." *Revelation & the Bible*. Ed. C. F. 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 Rogers, Jack B. "The Church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Biblical Authority*. Texas: Word Books of Waco, 1977.
- Runia, Klaas. "The Authority of Scrip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4, No. 2. 1969.
- Ridderbos, Herma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53.
- Smith, Morton H. "Interpretation and the Defense of the faith." *Interpreting God's Word Today*. Ed. Simon Kistemaker.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 Stibbs, Alan M. "The Witness of Scripture to its Inspiratio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 F. H. Henry. Grand

- Rapids : Baker Book House, 1958.
- Walvoord, John F.  
"Book Review of Special Revelation and the Word of God," by B. Ramm. *Bibliotheca Sacred*, CXVIII (Oct., 1961)
- Walton, Denis M.  
"An Identification of New Evangelicalism." Unpublished B. D. thesis: Central Conservative Theological Seminary, 1961.

### 3. 성경주석

- Bruce, F. F.  
"The Book of Act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Grand Rapids : Eerdmans, 1954.
- Calvin, Joh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J. W. Fraser. Grand Rapids : Eerdmans, 1973.
- \_\_\_\_\_.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T. H. L. Packer. Grand Rapids : Eerdmans, 1974.
- \_\_\_\_\_.  
"The Epistle to Timothy."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T. A. Smail. Grand Rapids : Eerdmans, 1964.
- \_\_\_\_\_.  
"The Second Epistle of St. Peter."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W. B. Johnston. Grand Rapids : Eerdmans, 1963.
- \_\_\_\_\_.  
"The Epistle to the Hebrews." *Calvin's NT Commentaries*. Trans. W. B. Johnston. Grand Rapids :

- Eerdmans, 1962.
-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Calvin's OT Commentaries*.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 Eerdmans, 1948.
- Dickson, David.  
"Psalms." *The Geneva Series of Commentaries*.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 Geldenbuys, N.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 Hendrikxen, W.  
"The Gospel of Matthew." *NT Commentary*. Guildford &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 \_\_\_\_\_.  
"Timothy and Titus." *A Geneva Series Commentary*.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 \_\_\_\_\_.  
"The Gospel of Matthew." *NT Commentary*. Guildford & London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 Jones, Hywel R.  
"Exodus."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Eds. D. Guthrie, J. A. Motyer, A. M. Stibbs. London : IVP, 1973.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문 창수 역. 마태복음. 백합출판사, 1973.
- \_\_\_\_\_.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II. 김 진홍 역. 로마서(하). 백합출판사, 1975.
- \_\_\_\_\_.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to the Galatians*. 강 병일 역.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백합출판사,

1975.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Revelation.*

차영배 역. 계시록. 백합출판사, 1978.

- Martin, Ralph P. "Ephesian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Nashville : Broadman, Vol. VI
- Morris, Leon. "Luke." *Tyndale NT Commentaries*. IVP, 1974.

## 4. 사전

- Bauer, W.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T.*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1974.
- McClintock & Strong *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Literature.* New York : Harper, 1892. I.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XXI.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 Kittel, Gerhar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X.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 Eerdmans, 1968.

## ‘申命記 神學’에 나타난 契約의 問題

姜 勇 元

(본 연구소 연구원 · 고신대 전임 강사)

## 차 례

- |                       |                       |
|-----------------------|-----------------------|
| 1. 序論                 | 4. 契約更新文書로서의<br>申命記   |
| 2. 申命記에 關한 基礎<br>的 論究 | 5. 申命記 神學의 契約<br>的 構造 |
| 3. 申命記 神學 試論          | 6. 結論                 |

## 1. 서론

## (1) 문제의 진술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 중의 하나이다.<sup>1)</sup> 이

1) Samuel J. Schultz, *Deuteronomy - The Gospel of Love* (Chicago : Moody